

2022학년도  
석사학위논문

민중신학으로 본 문익환의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k-Hwan Moon's Unification M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Minjung Theology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론신학전공

김영덕

민중신학으로 본 문익환의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전 철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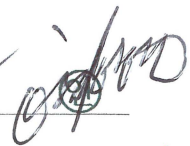
2022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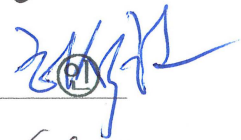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 론 신 학 전 공

김 영 덕

김영덕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 심 류재현 

부 심 이석현 

부 심 김재 (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22년 12월

# 목 차

목차	i
국문초록	iv
1. 서론	1
1.1. 연구동기와 목적	1
1.2. 연구방법과 구성	3
2. 민중신학과 문익환 통일론의 접점	6
2.1. 민중신학의 특성	6
2.1.1. 민중신학의 발생적 특성	6
2.1.2. 시대적 구분에 따른 민중신학	8
2.1.3. 민중·민족 개념에서의 민중신학	12
2.2. 민중신학적 통일운동의 신학	14
2.2.1. 박순경의 통일신학	14
2.2.2. 노정선의 통일신학	16
2.2.3. 손규태의 한반도 ‘평화신학’과 통일론	17
2.2.4. 문익환의 ‘통일의 신학’	19
2.3. 민중신학과 통일신학	21
2.3.1. 민중신학의 성서적 전거	21
2.3.2. 문익환의 ‘민에 의한 통일신학’	24
3. 문익환 통일운동의 뿌리와 전환	26
3.1. 문익환 통일운동의 뿌리	26

3.2. 문익환의 생애사적 전환과 통일 의지 -----	28
3.2.1. 재야의 사령탑에서의 통일 의지-----	30
3.2.2. 통일의 예언자로서의 문익환 -----	32
3.3. 문익환의 통일사상 -----	35
3.3.1. 민족해방을 위한 통일사상 -----	35
3.3.2. 민중해방을 위한 ‘민(民)’의 통일 사상-----	36
3.3.3. 평화·통일운동 사상 -----	41
3.3.4. ‘역사의 통일’ 사상 -----	45
3.3.5. 다원화된 통일운동과 문익환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	46
3.4. 통일의 미래상과 민족목회 -----	48
3.4.1.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 -----	48
3.4.2. 민족목회로서의 통일 -----	49
4. 문익환 통일운동의 기여와 전망 -----	51
4.1. 통일운동의 기여 -----	51
4.1.1. 방북의 성과 -----	51
4.1.2. 방북 의미의 재조명 -----	53
4.2. 방북 이후 통일운동의 전망 -----	55
4.2.1. 민의 주도과 민-관 협력의 필요성 -----	55
4.2.2. 민족 논리의 자주적 통일론 -----	57
4.3. 민중 주체의 신학적 통일운동 전망 -----	59
4.3.1. 민중의 신학적 상상력과 통일운동의 만남 -----	59
4.3.1.1. 히브리민중과 해방전통 -----	59
4.3.1.2. 예언자적 상상력과 해방의 몸부림 -----	61
4.3.1.3. 문익환의 민중신학과 통일운동의 랑데부 -----	63

4.3.2. 문익환 통일운동의 계승 -----	65
5. 결론 -----	71
참고문헌 -----	74
Abstract -----	78

## 국문초록

본 논문은 민족분단 극복을 위해 민중·민족의 입장에서 노력한 통일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문익환 목사의 통일운동과 관련한 신학자로서의 삶과 생애가 어떻게 통일운동과 접목되었는지를 고찰해 본 것이다. 그가 유학을 마치고 신학자로서 활동하던 시기는 한국에서 민중신학이 태동한 1970년대의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던 상황이었다. 전태일의 죽음은 그에게 민중과 민족의식을 더욱 불태우게 했고, 그 이후 장준하의 죽음은 민주화와 통일의 열망을 더 크게 가지게 했다. 이러한 일련의 민중 압살은 민족분단이라는 모순 속에서 더욱 치열해짐을 알고 통일운동으로 발걸음을 전향하게 된다.

『히브리민중사』를 쓴 그는 히브리민중의 고난이 한국 민중의 고난과 다름 없고, 분단 이스라엘의 참상이 남북 대립상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아, 히브리 예언자들의 사상을 깊이 체현하는 자세로 한반도 통일문제에 깊이 천착하게 된다. 서남동과 안병무가 ‘민중’을 중심으로 민중해방과 하느님나라 운동이라는 선교의 실천에 관심을 가졌다면, 문익환은 ‘시적 상상력’으로 통일을 꿈꾸며 ‘예언자적 운동’으로 방북을 결행하여 ‘벽’을 허무는 ‘몸의 해방 신학자’였고, 민족 모순을 풀어나가고자 했던 ‘민중·민족’ 신학자이자 실천적 통일신학자였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통일신학을 전개한 몇몇 평화-통일신학자들이 있지만, 문익환의 통일신학은 “걸어서라도 갈테야”라는 그의 시에서도 잘 보여주듯이 몸으로 분단을 열어가는 개척적인 신학자이자 민족적인 목회자였다. 이처럼 그의 ‘통일신학’은 ‘통일사상’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다. 그것은 문익환이 “나에겐 신앙과 운동이 곧 하나”라고 했던 것과 상통한다.

그의 방북 성과인 ‘4·2 공동성명’은 오늘도 그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것은 향후 민중 주체의 신학적 통일운동에 대한 전망에서 분명해질 수 있다. 민중의 신학적 상상력이 통일운동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문익환 통일운동의 결정적 기여와 영향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제어: 문익환, 통일운동, 통일신학, 민중신학, 히브리민중사

# 1. 서론

## 1.1. 연구동기와 목적

한반도의 분단이 72년을 넘어가는 가운데 민족의 모순은 날로 깊어 가고 있다. 남북한은 상호 대화적인 해결보다는 무력 시위에 의한 강공대응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이 거듭될수록 북핵 위협도 갈수록 위중해 가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에 입각한 남쪽의 연합훈련도 남북 대결의 양상을 가속화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국면에서 남북한의 통일의 길은 요원해 보이기만 하다. 남한을 둘러싼 한미일 방어 공조 체제는 강화되어 가고 있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국제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한반도 민족 내부의 모순이 외부세계로 확대되는 국면으로서 점차 자주적 통일의 길은 멀어만 보인다. 이러한 민족 모순의 결과 통일에 대한 보수와 진보적 이념 차이로 좀처럼 통일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남남갈등의 문제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통일의 문제는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민족적 당위성이 있다. 이산가족을 둘러싼 혈연적 분열뿐만 아니라 지리적 분단도 수 천 년의 역사를 함께 이어온 우리 민족이 공동으로 풀어야 할 민족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족적 과업 앞에 여전히 통일의 논의와 방식은 저마다 다른 이론을 내어놓고 있지만, 문익환 목사가 선회했던 통일 논의와 방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날의 시점에서 재고하고 분석하여 발전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별히 그가 남긴 신학적 유업과 통일사상은 한반도의 민족 모순을 해결하는 중요한 사상적, 또는 실천적 방향을 제시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그의 ‘민중 신학적 입장’과 ‘민’에 의한 통일론을 중심으로 민중·민족 모순을 풀어가는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문익환은 말하기를 “민주는 민중의 부활이요,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다.”라고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그의 ‘민중, 민족의 부활’에 대한 통일 논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시인 문익환 목사의 생애와 사상은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다. 민중의 신학자로서, 민중해방을 위한 민족의 목회를 하고 조국의 분단극복을 위한 ‘통일운동의 아버지’로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민족의 선구자다. 그의 탄생과 삶과 죽음은 일관되게 민족해방과 통일 지향적인 삶의 궤적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방북 관련 시 구절의 일부가 그의 삶의 궤적을 잘 보여준다.

아 머리가 멀쩡한 것들아  
평양 가는 표를 팔지 안겠음 그만두라고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임진강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  
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뉘으로 가는 거지<sup>1)</sup>

위의 시는 문익환 목사가 평양 방북을 앞둔 1988년 선달 그믐날 밤늦게까지 명상에 잠겨 있다가 새해 첫 새벽에 단숨에 써 내려간 통일 염원의 시다. “아 머리가 멀쩡한 것들아”라고 문익환은 절규하듯이 외친다. 머리가 멀쩡하면서도 ‘평양 가는 표’를 팔지 않는 이 민족모순의 분단 현실에서 그는 미친 광인(狂人)이 된 듯도 하다. 그의 같은 시 <잡꼬대 아닌 잡꼬대> 중에서 그는 이렇게 또 말한다.

이 양반 머리가 좀 돌았구만  
  
그래 난 머리가 돌았다. 돌아도 한참 돌았다.  
머리가 돌지 않고 역사를 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나<sup>2)</sup>

역사의 아이러니다. 민족모순이 ‘역사의 모순’으로 돌아온다. 스스로 ‘돌아도 한참 돌았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역사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는 ‘돌아도 돈

---

1) 문익환, 『걸어서라도 갈테야』 (서울: 실천문화사, 1990), 19.

2) 앞의 책, 18.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문익환의 시 한 구절이라도 어느 곳이든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족통일을 향한 그의 절절한 음성이 배어 있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도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으면서도 몇 가지 키워드로 풀어낼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삶을 살다 간 민족의 스승이다. 그의 삶을 말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우선, 시인·목사·민중·민족·통일·민중의 신학자 등이다.

이러한 시인·목사 문익환의 삶과 사상에 깃들어 있는 '민중'적 시각의 신학과 그의 통일사상이 어떻게 통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동안 문익환의 통일연구는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민중·민족의 신학'으로서의 문익환의 통일 논의는 연구가 드물다. '민중'의 입장에서 통일을 논하는 '민'의 통일론은 이미 여러 학자에게서 회자되었다. 하지만 '민중의 신학'과 '민족의 신학'이라는 측면에서 통일론을 구체화시킨 사례는 많지 않다. 따라서 문익환의 예언자적 민중신학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어떻게 연결되고 접목되며 발아하고 성숙해 갔으며, 방북의 결과가 그 이후의 운동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를 살피고 전망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1.2. 연구방법과 구성

민족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민족해방과 통일운동에 일생을 바친 문익환의 신학과 사상에 대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문익환기념사업회의 '문익환 아카이브' 조사에 의하면, 문익환 목사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학위논문은 모두 32편으로 나타난다. 그 가운데 석사학위 논문은 24편, 박사논문은 8편이다. 그중에 문익환의 통일운동 관련 논문으로 석사논문은 5편<sup>3)</sup>에 해당하고 박사논문은 2편이 있다. 이윤희의 박사학위 논문은 "문익환의 통일론과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로 문익환의 통일문제 인식과 관련하여 그의 통일론과 통일운동이 남북한 통일운동사에서 어떠한 의

---

3) 석사논문 5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재현, "늦봄 문익환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05. 2. 박종경, "민중 중심의 기독교 통일운동가, 늦봄 문익환 목사,"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18. 3. 공헌배, "문익환 목사와 통일운동," 국내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2001. 4. 현철승, "문익환 목사의 통일운동론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1. 5. 이요한, "문익환 목사의 통일운동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미를 지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sup>4)</sup> 반면에 임태환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 개신교 운동에 대한 민중신학적 해석”이다. 이 가운데서 문익환 목사의 통일운동과 관련하여서는 민중운동 진영의 1989년 “4·2 남북 공동성명”에 나타난 통일운동을 분석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민에 의한 민 주도의 통일’과 점진적 통일, 평화통일, 그리고 통일맞이 운동을 다루고 있다.<sup>5)</sup> 이들 두 논문이 문익환의 통일운동을 다루고 있지만 민중신학이 문익환 통일론과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를 별도로 세분화시켜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자료와 문헌들을 검토하되 다음과 같은 서술형태로 논문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중신학과 문익환 통일 연구의 접점과 전개 과정을 다루는 점에서, 민중신학의 특성과 발생적 측면을 살펴보고, 민중신학의 시대적 구분에 따른 특성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민중과 민족에 대한 쟁점으로서의 ‘민중·민족’ 개념을 민중신학의 차원에서 논하고, 민중신학적 통일운동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박순경과 노정선, 손규태의 ‘통일신학’과 ‘한반도 평화 신학’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민중신학과 통일신학의 만남을 위해서는 먼저 민중신학의 성서적 근거를 살피고 문익환의 ‘민에 의한 통일신학’을 2장에서 고찰할 것이다.

3장에서는 문익환 통일운동의 뿌리와 전환점을 고찰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먼저 문익환 통일운동의 뿌리가 무엇이며, 그 역사적 배경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익환의 생애사적 전환과 통일 의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일련의 활동과 성과가 어떻게 재야의 사령탑에서 통일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일』이라는 책<sup>6)</sup>에서 문익환의 통일의지와 사상을 엿보게 된다. 이러한 의지와 사상적 배경을 통해 ‘통일을 위한 예언자로서의 문익환’의 면모를 살피게 될 것이다.

문익환의 통일 사상에 대해서는 먼저, ‘민족해방을 위한 통일 사상’, ‘민중해방을 위한 민(民)의 통일 사상’, ‘평화·통일운동 사상’, ‘역사의 통일 사상’, ‘다원화된 통일운동과 문익환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등을 차례로 살펴볼 것이다. 문익환이 바라보

---

4) 이유나, “문익환의 통일론과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2-3

5) 임태환,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 개신교 운동에 대한 민중신학적 해석,”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118-142.

6) 문익환, 『문익환 옥중 서한집,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입니다』 (서울: 삼민사, 1991). 이 책이 출간되는 1991년에 이미 문익환은 방북 이후 재야 활동 중에, ‘분신 정국 장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수감된다.

는 통일의 미래상은 무엇이며, 동시에 그가 신학자로서 추진했던 ‘민족목회’는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 곧 남북이 서로 다르게 강조하는 부분인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변증법적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족목회로서의 통일’에 대한 성격을 고찰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문익환 통일운동의 기여와 전망을 살펴볼 것이며, 통일운동이 끼친 영향은 무엇이며 방북의 성과와 관련된 의미를 재조명할 것이다. 특히 방북 이후 통일운동의 전망과 관련하여 ‘민의 주도’와 ‘민-관 협력의 필요성’과 ‘어떤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를 논할 것이다. 특별히 민중 주체의 신학적 통일운동 전망과 관련하여 ‘민중의 신학적 상상력과 통일운동의 만남’이라는 측면과 문익환이 강조하는 신학적 배경이 되는 ‘히브리 민중과 해방 전통’에 입각한 ‘예언자적 상상력과 해방의 몸부림’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나타났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신학적 과정이 ‘문익환의 민중신학과 통일운동의 랑데부’를 생산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문익환의 통일운동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자가 이러한 민중(씨울)의 통일운동 계승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밝힐 것이다. 이로써 문익환 통일운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한 ‘민중신학으로 본 문익환의 통일 운동에 대한 연구’의 심층적 분석이 미래의 전망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될 것이다.

## 2. 민중신학과 문익환 통일론의 접점

### 2.1. 민중신학의 특성

#### 2.1.1. 민중신학의 발생적 특성

민중신학은 한국적 신학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세계신학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이 처음 비롯된 것은 서남동이 1975년 4월 『기독교사상』에 「민중의 신학」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부터다. 이때 서남동은 예수에 대한 이해를 민중과의 ‘무조건적 동일화’로 승화시켰다. “이 동일화는 종교적 또는 도덕적 조건이나 자격이 들지 않는 ‘무조건적 동일화’, ‘절대적인 동일화’라 말할 수 있다”고 했다.<sup>7)</sup>

안병무 또한 같은 해 『기독교사상』에 ‘민중·민중·교회’라는 제목의 글을 쓰면서, 민중 논의를 본격화했다. 예컨대, 안병무는 성서에서 ‘민중’과 ‘국민’에 해당하는 단어를 각각 ‘오클로스(ὄχλος)’와 ‘라오스(λαός)’라는 단어를 대입한다.<sup>8)</sup> 이로써 ‘오클로스’는 민중의 신학적 용어로 정착되면서 라오스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에 대한 논변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점에 대해 안병무는 라오스와 오클로스에 대한 구분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해 주고 있다.

라오스는 흔히 ‘하느님의 백성’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 쓰는 말로, 한 유기적인 집단에 종속된 다수를 가리키는데 현대어로는 ‘국민’에 해당한다. 구약을 그리스말로 번역한 70인역(LXX)에는 백성을 거의 라오스라는 말로 쓰고 있다. 이에 대해 오클로스라는 말은 아주 드물게 쓰고 있는데, ‘노예들’이나 ‘고용된 사병들’이나 ‘강제 징용자들’을 가리켜 오클로스라고 불렀다.<sup>9)</sup>

안병무는 1975년 3월에 김찬국, 김동길 교수의 출소를 기념하는 강연에서 ‘민중’

7) 서남동, “예수·교회사·한국교회,” 『기독교사상』 19 (1975), 53.

8) 안병무, “민중·민중·교회,” 『기독교사상』 19 (1975), 81-82.

9) 안병무, 『갈릴래아의 예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19), 136-137.

신학을 전개했고, 현영학 또한 탈춤의 한풀이 속에서 민중신학의 개념을 언급하는 등 거의 동시대에 민중신학이 집중적으로 선포되었다.<sup>10)</sup> 그 결과 1979년 한국에서 개최된 아시아교회협의회(CCA)에서 ‘민중신학’이라는 고유의 이름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유명사로서의 신학 이름이 탄생하게 된 이후에, ‘운동의 신학’, ‘변혁의 신학’, ‘물(物)의 신학’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지만 큰 줄기에서는 모두 ‘민중신학’이라는 영역에 포섭되는 것이다. 서진한은 민중신학의 태동과 관련된 정의에 대해 크게 5가지 범주에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현장성이다. 현장에서 빼앗기고 갇힌 사람들의 고난과 저항의 현장이다. 둘째, 체험성이다. 새로운 하나님의 체험으로서 고난의 현장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이다. 셋째, ‘씨울사상’이다. 함석헌의 씨울사상이 민중신학의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민중신학의 근저에 씨울사상이 깊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함석헌을 연구한 정지석은 이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함석헌의 민중(씨울) 사상과 민중신학 간에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안병무, 서남동, 김용복 같은 1세대 민중 신학자들 가운데 민중신학에 영향을 끼친 함석헌의 영향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 다만 서남동만이 자신의 민중론이 함석헌의 민중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짧게 언급할 뿐이다.<sup>11)</sup>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서남동은 송기득과의 대담에서 민중신학과 씨울사상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씨울이라는 개념이 존재론적 측면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민중이란 개념은 사회정치적 차원을 부각하는 개념이다.”<sup>12)</sup> 넷째, 증언이다. 이른바 ‘민중 사건’을 ‘그리스도 사건’으로 깨닫고 증언하는 것이다. 민중 사건이라는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눈 감지 않고, 예언자적으로 비판하며 증언하는 것이다. 다섯째, 투신이다. 고난과 저항의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민중 구원론과 결부되는 윤리적 신학이 된다.<sup>13)</sup> 서진한은 민중신학의 이러한 발생적 특성과 전개 과정을 크게 5가지 범주에서 언급하면서 민중신학의 특성을 시대별로 구

10) 서진한, “민중신학의 태동과 전개,” 『민중신학입문』 (서울: 한울, 1995), 9.

11) 정지석, “함석헌의 민중사상과 민중신학,” 『신학사상』 134 (2006), 9-10.

12) 서진한, “민중신학의 태동과 전개,” 14.

13) 앞의 책, 18.

분하는 일을 크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1세대와 2세대의 구분은 5·18 광주항쟁사건이 큰 분기점이 되고 있고, 그 이후 마르크스주의 철학과 경제학이 크게 원용되었던 사실도 상기시킨다. 그리하여 1세대 민중신학이 ‘증언’의 신학으로 특징지어진다면, 2세대는 ‘운동’의 신학으로 변화 확대되는 것임을 지적한다.

### 2.1.2. 시대적 구분에 따른 민중신학

민중신학이라는 말은 ‘민중’이라는 용어와 결부된 신학적 작업과 관련된 용어이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 ‘민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학이라는 범주의 틀에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신학이 가능했던 시대적 상황과 신학적 통찰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민중신학이라는 개념의 특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신학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민중’이라는 말을 강연에서 처음 사용한 사람은 안병무로 흔히 지칭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5년 민주화 투쟁이 한창 뜨겁던 시절 3·1절 예배에서 안병무는 ‘민중’ 개념을 신학적 해석의 틀로 사용했다. 안병무 자신의 이야기에 의하면, 1970년대에 민중신학을 제창하게 된 것도 민족문제나 정치신학의 연장선에서 발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1960년대 초반부터 스스로 ‘민중적 설움’, ‘민족적 민중’, ‘민중적 민족’이라는 개념이 자신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상적 흐름 속에 안병무는 민중신학의 정초를 놓았고, 그가 쓴 『민중신학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 민중신학의 뿌리를 밝히면서, 민중신학이 탄생한 배경은 유신체제 하에서의 한국 민중의 상황을 말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sup>14)</sup>

김영태는 함석헌의 ‘씨울 사상’이 민중신학의 철학적 배경이 되었음을 설명하면서, “안병무나 서남동과 같은 민중신학자들은 함석헌과의 개인적인 친분 이상으로 그의 씨울 사상을 통해 일찍이 민중의식을 일깨우게 되었고, 그것을 그들의 민중신학에 원용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5)</sup>고 말한다. 또한 안병무는 함석헌이 그에게 미친 영향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14) 안병무, 『민중신학 이야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17, 23.

15) 김영태, 『함석헌의 사상과 삶에 대한 종교철학적 탐구』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364.

함 선생님께서 인해서 나는 기독교를 탈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상적으로 얼마나 좁은 틀 속에서 살고 있었나를 깨우쳐 주셨지요. 함 선생님의 씨올 사상은 내가 민중과 민중신학을 발견하는 과정에 어떤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함 선생님은 통찰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지금도 함 선생님의 영향이 내게 끊임없이 작용해요.<sup>16)</sup>

권진관은 민중신학이 이루어지는 배경에 함석헌의 영향이 컸음을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민중신학에 영향을 준 사상적 전통이 있었다. 민중신학은 한국의 민중사상의 영향 속에서 싹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깝게는 함석헌의 씨올 사상을 들 수 있고, 좀 더 길게는 동학사상과 운동, 3·1 운동, 일제하의 민족운동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함석헌은 초기 민중신학자들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서남동, 안병무 등과 그 후의 소장 민중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서남동은 함석헌이 1970년대 이래 『씨올의 소리』에서 민중을 주제로 외치고 있을 때 일찍 동조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다. 이렇듯 함석헌 사상 등이 민중신학 이전에 민중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sup>17)</sup>

서남동은 ‘민중’ 개념을 신학적으로 적용하면서 ‘민중신학’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채택했다. 서남동의 명저, 『민중신학의 탐구』는 한국 신학계뿐만 아니라, 세계신학사에서도 창조적이라 할 만큼 정치-문화신학으로 자리잡았던 작품이다. 예컨대 ‘예수의 고난과 희망이 한국 민중의 고난과 희망’으로 연결되는 신학적 작업 속에 서남동의 역할이 지대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말한다.

BC 13세기에 애굽 땅에서 도탄에 빠져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의 울부짖음에 대한 야웨의 메아리가 출애굽 사건이요, ... 우리의 경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중의 부르짖음에 대한 어떤 신학자들의 메아리가 민중신학으로 형성되어 간다.<sup>18)</sup>

16) 안병무, “민중, 민중, 교회,” 『민중과 한국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162-163.

17) 권진관, 『예수, 민중의 상징; 민중, 예수의 상징』 (서울: 동연, 2009), 378.



여기서 서남동은 민중신학을 ‘70년대에 민중의 부르짖음에 대한 신학적 메아리’로 정의한다. 짧은 정의이지만 내포하는 함의는 크다. 스스로 자신의 신학을 ‘방외신학(方外神學)’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이 또한 70년대 그가 받았던 체제 밖으로 내몰린 수난과 억압적 기제가 작용했음을 보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전통적 신학과는 다르게 시대적 불운을 극복하게 하는 방편으로서, ‘사회경제사’를 신학에 도입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그가 신학의 방법론으로 사회경제사를 채택하게 된 계기는 한국의 국사학자들의 영향이 컸고, 외국 신학자들의 영향은 아니었다. 그는 또 함석헌 선생의 말을 인용하면서, “공동적 사고(共同的 思考)”를 하는 방법을 신학에 적용한 셈이다. 70년대 당시의 현대 신학자와 제3세계 신학자들은 대부분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으로 성서와 신학을 재해석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서남동도 사회경제사적 방향으로 초점을 맞춘 결과 동시대적 정신을 담아낼 수 있었고, 특히 “십자가 사건이나 출애굽 사건은 사회경제사적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참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sup>19)</sup>는 그의 증언도 민중신학의 탄생과 발전 초기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사회경제사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을 개인이기보다는 하나의 집단’으로 보게 마련이라고 하면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되는 가운데 ‘민중’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인간적인 것의 대명사’가 된다고 했다. 이른바 인간은 민중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간과 민중에 대한 이해를 지닌 서남동은 “민중의 역사의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sup>20)</sup> 특별히 함석헌의 씨울사상과 관련해서는 안병무의 민중과 씨울 개념 대비를 옳게 보고 있다. 예컨대, 존재론과 우주론적 차원에서 보면, ‘씨울’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민중’이라는 점이다. 그러면서 그는 민중을 생각하는 사람은 함 선생의 ‘씨울’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고, 함 선생 자신도 ‘민중’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론적 측면과 사회·역사적 측면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씨울로서의 민중의 이해가 곧, 민중신학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민중론에 입각하여 서남동은 민중신학의 전거(典據)를 성서 이외에 교회사나 사회경제사는 물론 문학사 방향으로까지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성서’가 절대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참고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성서’는 열려진

18)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개정증보판)(서울: 동연, 2018), 7.

19) 앞의 책, 8, 221.

20) 앞의 책, 224.

문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김진호는 이러한 민중신학이 공식적인 용어로 채택되는 그 이전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1970년의 전태일 열사의 사건을 기점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이 일군의 신학자들에 의해 반성적 성찰로 태동한 것이 민중신학이라고 지적한다.<sup>21)</sup>

물론 이러한 ‘민중신학’의 개념적 태동에는 1960년대와 1970년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개발독재와 이에 따른 소외된 자들의 고난에 대한 인식과 저항이 근본적인 특성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민중신학은 근현대 한국 사회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소외되고 억압된 민중에 대한 신학적 반성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중신학은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볼 때, 김진호의 지적처럼 1970년과 1990년대 사이에서의 시대별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 소위 제1, 2, 3세대 신학자군으로 구분된다.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2)</sup>

첫째, 제1세대 민중신학의 특성은 ‘권위주의적인 군부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배태된 ‘한국 민중의 고난’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발견하고<sup>23)</sup> 거기서 예수가 그러했듯이, 악마적 ‘권위주의 독재’에서 민중을 해방하는 민중해방의 사건이 곧 이 시기 민중신학의 특징을 이룬다. 이 와중에서 지식인은 ‘그리스도 고난의 사건’의 증언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시기 민중신학의 또 하나의 특성은 지식인이 중심이 된 신학의 전개인 까닭에 ‘민중’의 눈으로 신학하는 ‘그리스도 사건’으로서의 ‘역동(動)적인 신학’이었다면, 기존의 ‘정통신학’은 교리 중심의 ‘정(靜)적인 신학’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민중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신학적 차이일 수 있다.

둘째, 제2세대 민중신학은 1980년대의 시대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1980년대의 민중운동은 중화학 공업에 종사하는 20-30세대의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제국주의 신식민지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자본주의 전개 과정에 대한 반성적 인식의 표출이었다. 1세대에서는 ‘역사의 주체’를 ‘민중’으로 보던 것과는 달리, 2세대에 와서는 노동자 계급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1세대의 ‘독재체제’에 대한 저항이 이제는 ‘제국주의와 국내 자본가 세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

21) 김진호, “민중신학이란 무엇인가: 전개와 평가 및 전망,” 『시대와 민중신학』 1 (1994), 24.

22) 앞의 논문, 25-32.

23) 안병무, 『민중신학이야기』, 117-120. 안병무는 ‘민중사건은 예수 사건이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1980년대의 시대상을 고려하면, 민중신학의 특징은 기독교 민중 사회운동과 기독교 민중교회 운동으로 크게 양분된다. 특히 5·18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민족·민중운동의 대중적 형성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 형성된 1세대 민중신학은 1980년대에 형성된 사회적 변화를 담아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른바 1970년대의 고난과 압제의 현장에 대한 신학적 증언에 그치지 않고, 민중적 현실의 변혁을 추구해야 했고, 그에 따른 과학적 분석과 변혁의 전술 및 신학적 입장이 필요했던 것이다. 예컨대, ‘증언의 신학’에서 ‘운동의 신학’으로서의 민중신학이 재탄생한 것이다.<sup>24)</sup>

셋째, 1990년대의 민중신학의 특징은 계급투쟁과 국가적 범위를 넘어서는 ‘신사고(新思考)’의 물결에 따른 국제적인 연대 운동이다. 예컨대, 평화운동이나 환경운동 같은 것들이다. 이른바 ‘주체의 다양화’에 따른 ‘주체의 다변화’ 현상이 1990년대에 주도된 민중신학의 특성을 이룬다. 따라서 한국교회에서의 민중운동도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는 주체와 주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합체적 형식의 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체제로의 이행과정을 보게 된다.

이상에서 본 제1, 2, 3세대의 시대 구분적 민중신학의 특징은 그 실천 주체가 각각 지식인 중심에서 점차 시민 중심으로 복합적인 방향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았고, 주제 또한 초기의 정치 중심적 민중해방에서 경제 중심의 민중해방으로 나아가서 그 이후 생태·환경·국제문제 등을 포함한 총체적 민중해방으로 방향이 옮겨 갔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1, 2세대의 민중신학은 실천이론을 거부하거나, 실천이론이 사실상 부재했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2.1.3. 민중·민족 개념에서의 민중신학

박순경은 기존의 민중신학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민중신학을 제창하고 있다. 그것은 민중의 개념을 민족사적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점이며, 민족·민중이 주체가 되는 통일을 담보해야 하는 점을 아울러 검토하면서 민중신학의 새로운 전망을 말하고 있다. 그가 비판적인 입장에서 민중신학을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는 ‘민중’에 대한 민족사적 개념의 재인식 때문이었다. 1920년대에 이미 민족·민중 운동의 맹아를 발견했고, ‘민중’이라는 말이 드높게 울렸다고 했다. 이는 1970년대의 인권민

24) 김명수, 『안병무의 신학사상』 (서울: 한울, 2011), 247-249.

주화운동의 맥락을 넘어서는 것으로 항일 민족 운동사의 차원에서 민중신학을 재고찰해야 하고 통일의 주체 또한 민족·민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의 민중신학 소장파와 기독교 청년들은 1970년대의 민중의 주제를 넘어 민족통일과 변혁의 과제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민중신학의 범위를 넓혀갔다고 지적한다.<sup>25)</sup>

민중의 문제와 민족의 문제를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시각에 있어서, 문익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족운동과 민중운동도 하나이지요.”<sup>26)</sup> 1980년대의 민주화 상황과 그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한 대담에서 문익환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국내적 상황에서의 민중의 문제나, 남북관계에서의 민족의 문제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민중·민족의 공통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가 신학적으로 적용될 때는 예루살렘의 기독교와 대척점에 있는 갈릴래아 민중의 오클로스나, 이집트의 식민지 생활로 압박을 받던 하비루의 전통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예컨대 민중의 고난은 국경을 초월하여 해방과 탈출(자유)이 필요한 공통의 신학적 관심사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 한반도의 민족모순을 해결하는 ‘통일신학’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함석헌도 민족문제를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 파악하면서, 참 살림은 민족적 자각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은 개인으로 살지만, 또 민족으로 살아간다. 민족으로서 삶이 있기에 개인의 삶이 있을 수 있다. 이날까지 몇 천년 민족으로 살아 온 전체가 없다면 ‘나’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바로 그러하기때문에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민족도 하나의 인격이라는 사실이다. ... 개 개인도 산 것이지만, 민족은 개인보다 한층 더 높은 생명이다.”라고 함석헌은 말하고 있다.<sup>27)</sup>

서구신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적 약자인 ‘민중’의 입장에서 조직신학을 논하는 권진관은 ‘민중이 메시아다’라는 관점에서 ‘민중’의 신학적 전거를 논하고 있다.<sup>28)</sup>

그는 전통적인 신학적 주제들인 ‘신, 삼위일체, 계시, 창조, 그리스도, 죄, 구원, 교회, 성령 등’이 이른바 서구의 중산층을 상대로 한 눈높이의 신학이 아니라, 성서의 계시적인 입장과 민중의 눈으로 신학을 재구성하고 있다. 예컨대, “민중신학적 조직

25) 박순경, 『통일신학의 미래』 (서울: 사계절, 1997), 36-38, 50.

26) 문익환, 『문익환 전집』 5권 (서울: 사계절, 1999), 450.

27) 함석헌, 『함석헌 저작집』 17권 ‘성서적 입장에서 본 세계역사’ (과주: 한길사, 2009), 281 -283.

28) 권진관, 『예수, 민중의 상징 민중, 예수의 상징』 (서울: 동연, 2009), 64-81.

신학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상징들을 고난 받는 민중의 눈으로 읽고 이들의 해방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한다”<sup>29)</sup>는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서 그는 세 가지 관점에 주목하는데, 첫째, 민중신학은 아시아와 제3세계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둘째, 성서를 중요한 신학적 원천으로 하며, 셋째, 아시아 민중의 종교문화적 전통은 민중신학의 중요한 자료로서, 민중신학은 종교 다원주의적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특히 민중신학은 1970년대의 한국 상황에서 태어난 것으로 민중해방의 신앙을 추구하며, 오늘날 잘못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sup>30)</sup>

## 2.2. 민중신학적 통일운동의 신학

### 2.2.1. 박순경의 통일신학

박순경은 “70년대 후반부터 논의된 민중신학에서는 민중의 민족적 차원이 고려되지 않았다”<sup>31)</sup>고 하면서 민중신학이 인권 민주화와 노동운동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자본주의 세계 이면의 진실을 바라보는 안목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안병무와 서남동의 민중 개념에는 민족사 차원이 결여된 것으로, 민족은 대외적인 개념이기 이전에 3·1운동의 모체로서, 그 민중운동이 바로 민족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다.<sup>32)</sup> 민중신학이 정치신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교회 밖의 영역에서도 억눌린 자와 소외된 민중을 해방시키는 역할에 주력한 만큼, 민중신학에서 ‘민중’의 이해는 ‘민족’의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일신학을 지향하는 박순경의 주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순경은 1993년에 『통일신학의 여정』과 『통일신학의 고통과 승리』라는 두 권의 책을 동시에 출간한다. 민중의 의지를 민족의 정신으로 확대 발전시키면서, ‘통일신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개척해 간다. 이른바 민중신학이 통일운동으로 나아가는 접점이자 출발점의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그의

---

29) 앞의 책, 5.

30) 앞의 책, 8-11.

31) 박순경, 『통일신학의 여정』 (서울: 한울, 1992), 62.

32) 박순경, “민족 통일 운동과 민중신학의 문제,” 52쪽.

책 『통일신학의 여정』은 1986년부터 민족통일에 대한 여러 강연의 주제들을 엮은 것으로 한국의 신학이나 특히 여성신학적 입장에서 발표한 주제들이지만, 1991년 감옥생활<sup>33)</sup>을 겪어야 했던 만큼, 민족의 분단으로 인한 모순 속에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그가 통일신학의 정초를 놓았던 몇 가지 명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34)</sup> 첫 번째 요소는 1945년 민족분단 사건이다. 이에 따라 그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 1972년 남북 7.4 공동성명은 이를 더욱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박순경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통일 지향적 민중개념의 입장에서 볼 때, 1970년대 후반부터 논의된 민중신학에서는 한계를 느끼고, 일정 정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1980년대의 사회적 배경에는 인권과 민주화 운동의 개념뿐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는 사회 경제적 측면의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신학적 입장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박순경은 민족통일이야말로 한국의 신학이 풀어가야 할 특수한 과제를 밝혔다. 한국의 분단 상황에서 한국신학이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비역사적, 혹은 반역사적 신학’이라고 평한다. 따라서 그는 기독교가 분열과 왜곡을 조장하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한민족의 통일 공동체 실현을 위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했다.<sup>35)</sup>

이러한 관점에서 박순경이 주장하는 통일신학의 주체는 ‘민족·민중·여성’이 그 중심 개념을 이룬다. 이는 먼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앙에 근거하고, 한편으로는 한민족 근대사와 오늘의 분단 상황과 통일의 과제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항일민족 운동과 함께 중국을 포함한 대외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주성의 회복 및 사회적 참여가 보장되는 시민사회의 건설을 지향할뿐더러, 봉건 가부장 제도로부터의 여성해방이라는 주제까지 통일신학의 범주에 담고 있다. ‘민족·민중·여성’이라는 이들 세 주제가 어떻게 하여 한국 신학과 통일신학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를 자문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서 역사하신다는 신앙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동시에 이들 세 개념이 통일신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두 자유의 획득이다. 그 자유는 곧, ‘민족, 민중, 여성’의 해방이다.<sup>36)</sup>

33) 박순경은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이에 대한 모두 진술서와 항소이유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통일신학의 고통과 승리』, 159-246.

34) 박순경, 『통일신학의 여정』, 62-70.

35) 앞의 책, 64.

### 2.2.2. 노정선의 통일신학

기독교 윤리학자 노정선은 자신의 저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통일전략』을 통하여, 통일신학에서 본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진단하고 있다. 그는 북쪽의 주체사상과 민중신학의 무리한 대화를 지적하면서, 1988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평화통일 선언('88선언) 이후 북한에 '주체사상과 민중신학'에 관한 세미나를 제안했지만 북한에서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그 후 약 20년 가까이 지난 2006년에 북측에서 다시 세미나 제안이 왔지만, 정작 남한 당국의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평양 방문이 성사되지 않았다.<sup>37)</sup> 한국의 민중신학자들이 대부분 빈곤층에서 벗어나 있는 지식인 중심이라는 한계도 북한 측에서 볼 때 이러한 대화를 할 만큼 한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노정선의 생각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봉수교회 건축 완료, 붕괴된 봉수 다리 재건축, 북한의 정체성을 해외에 알리는 국제연대 적업의 실천 등이 우선 과제였다는 것이다.<sup>38)</sup>

노정선은 북한의 신학을 '인민신학'으로 소개한다. 이는 사회주의를 기초로 한 북한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인민 신학을 발전시킨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기초로 한 인민신학은 민중신학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회경제 분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인민신학은 자본주의를 수용하지 않거니와 사회주의를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신학은 이러한 양자를 포괄해야 선(善)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sup>39)</sup>

민중신학과 관련하여 볼 때, 근래 들어 대다수의 민중 신학자가 글을 쓰는 일에 만 몰두하고 정작 민중의 억압이나 차별, 고난의 문제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중신학의 진정한 부활이 필요하다고 노정선은 역설한다. 동시에 인민신학을 말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세계의 경제 수탈과 착취 그리고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수만 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사 지배자들로부터도 인민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말한다. 실지로 굶주리는 인민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면 인민신학은 살아있는 신학이 될 것이라고 한

36) 앞의 책, 70-76.

37) 노정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통일전략』 (서울: 한울, 2016), 76.

38) 앞의 책, 77.

39) 앞의 책, 79.

다. 이러한 해방행동은 신학화 작업에 우선한다는 것이다.<sup>40)</sup> 진정한 통일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 성서의 애굽 제국에 대항했던 노예들과 히브리 민중, 그리고 신약성서의 오클로스를 해방하려 했던 성서의 전통과 같이, 인민신학과 민중신학이 서로에게서 배우면서 보완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메시아 중심의 한반도 통일신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제국신학을 해체하는 인민신학과 비민중적인 요소를 걸러낸 민중신학이 종합적으로 협력할 때, 한반도의 통일지향적인 바람직한 통일신학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1)</sup>

### 2.2.3. 손규태의 한반도 ‘평화신학’과 통일론

기독교윤리학자로서의 손규태는 한반도 ‘평화신학’에 관한 과학적 분석의 태도에서 정립을 시도한다. 과학적이라 하는 것은 한반도가 처한 구체적 현실을 성서 신학적 입장에서 조명하고 해결책을 찾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한반도의 ‘평화신학’<sup>42)</sup>의 정립을 위해서는 당면한 갈등 구조를 분석하고 폭력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그는 한반도의 상황분석을 우선 주변 강대국들의 냉전체제에 따른 외세에 의한 분단구조로 보고, 한국전쟁 이후에 내면화된 이데올로기에 따라 남북이 각각 반공이나 반미·반제국주의 정신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 사회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sup>43)</sup>

이러한 체제 모순이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손규태는 “남북한 정부의 대내외적 역량 부족에 그 원인이 있고, 무엇보다 남한 정부의 비자주적이고 비민중적 행태가 한반도의 갈등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sup>44)</sup> 이 밖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신학적 입장에서 해결 방식을 찾아가는 노선으로 해방신학, 민중신학, 평화신학을 거론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손규태는 평화신학에 주목하면서, 제1세

40) 앞의 책, 80-81.

41) 앞의 책, 83.

42) 최근 들어 ‘평화의 신학’을 신학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평화’를 다원적 입장에서 해석하여, ‘감폭력(減暴力, 평화는 폭력을 줄이는 과정)’을 평화에 이르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찬수의 ‘평화학’이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감폭력의 정치와 평화의 신학”, 『평화의 신학』 (서울: 동연, 2019), 13-37.

43) 손규태, 『한반도의 그리스도교 평화윤리』 (서울: 동연, 2018), 149-152.

44) 앞의 책, 151.



계 국가들의 평화신학은 현존하는 이념체제와 경제 질서 유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신학의 정립을 위한 요소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신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극복을 주로 문제 삼고 있는 해방신학적 요소들과 국가 독점 자본주의적 체제가 가져온 계급모순의 극복을 일차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민중신학적 요소들을 상호 매개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sup>45)</sup>

손규태가 제시하는 한반도 평화신학은 해방신학적 요소와 민중신학적 요소를 매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신학을 장착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그는 서남동과 안병무가 말하는 ‘민중’의 개념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개념이 됨으로써, “민족을 단위로 하고 구성된 민족국가가 갖는 정치 경제적 실체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민중신학자들의 민족 이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박순경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박순경은 “민중은 좁은 의미에서는 민족의 일부분을 지칭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민족이다. 민족, 민중을 연결해서 말하는 이유는 한민족사 전체가 민중의 현실의 시각에서부터 변혁되고 새롭게 창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한국 현실에서는 오히려 민족문제가 우선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46)</sup>

이러한 손규태의 한반도 평화신학의 주장은 무엇보다 한반도의 민족모순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남북통일의 전제로서 시급한 과제는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대립적 투쟁을 중단하고 남북한 국민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남북한의 화해 이후 평화의 시대가 오면 모든 군사적 수단을 줄여야 한다. 남한의 국방예산은 대략 40조에 해당한다. 이를 10조만 삭감하여도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 20조를 줄이면 의료보험을 내지 않고 무상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화해와 평화를 이루면 남북이 왕래하고 협력 지원하여 적대 의식이 사라지면서 남북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통일의 길도 용이하게 열릴 것이다.<sup>47)</sup> 이러한 구상이 손규태의

---

45) 앞의 책, 158-159.

46) 앞의 책, 160-161.

47) 앞의 책, 169-172.

통일을 향한 한반도 평화신학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 2.2.4. 문익환의 ‘통일의 신학’

문익환의 신학은 민중·민족의 신학이면서도 동시에 ‘통일의 신학’이라고 이름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추진하는 모든 민중, 민족운동도 결국 통일을 향한 몸부림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그가 1972년 『기독교사상』에 발표한 글에 의하면, 그는 남북통일의 신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예컨대 그는 당시에 유행처럼 회자 되던 정치신학이나 혁명의 신학, 혹은 ‘검정신학(흑인신학을 문익환은 이렇게 표현했다)’이나 여성신학이라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린다고 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신학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부딪혔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명하고자 했던 노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sup>48)</sup>

신학이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학문이라면, 한국이라는 현실에서 우리가 닦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남북통일이며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명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남북통일의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통일의 신학이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남북통일의 신학이 하루속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유물론자들인 공산주의자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어야 하기에 그들 이상으로 물질(物質)을 중요시하는 신학이어야 한다. 교회를 박멸하던 그들, 도저히 한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피차 생각하던 그들과 한 형제가 되는 화해의 신학이어야 한다.<sup>49)</sup>

위의 언급 속에서 문익환의 ‘통일의 신학’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잘 읽을 수 있다. 우선 유물론과 신학의 만남이 조화롭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들이 ‘물질’에 대한 사유를 더욱 풍부히 해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그리고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만나야 하는 ‘화해의 신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문익환은 ‘화해의 신학’이 통일신학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

48) 문익환, 『문익환 전집』 4권 (서울: 사계절, 1999), 27.

49) 앞의 책, 28.

이 밝힌다.

저는 그동안 신학자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성서의 ‘화해의 신학’이 우리의 민족통일에 어떤 빛을 던져 줄 것인가를 밝히는 글을 써 달라고 부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글이 한편도 나온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서구의 ‘화해의 신학’이 우리처럼 분단의 쓰라림을 모르는 사람들의 신학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sup>50)</sup>

이처럼 ‘화해의 신학’이 한반도 통일의 신학적 기초가 되는 작업을 추진해 온 그는, 서구 신학의 한계를 느끼고 직접 통일신학의 기초로서의 화해 신학을 추구하던 중,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는다. 1989년 11월 22일에 양교철 목사에게 쓴 편지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민중신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중이 주체가 되어서 이룩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화해를 거쳐 평화에 도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학의 서론이 화해라면, 결론은 평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신학의 주제가 되어야 하고, 통일신학의 서론도 결론도 평화일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sup>51)</sup>

이것은 단순한 차원이 아닌 다소 전략적인 차원의 신학이다. 이를테면, 문익환의 표현대로, “그들의 관심사에 내려가서, 그들의 관심사에서 대화를 시작해서, 예수의 복음에까지 눈을 뜨게 하는 선교의 신학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sup>52)</sup>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익환의 ‘통일의 신학’은 민족 화해의 차원을 넘어 하느님의 평화에 이르기까지의 차원 높은 전략적 선교신학이다.

향린교회를 담임했던 조현정 목사는 “늦봄 문익환 목사의 사상과 신학”이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 문익환의 신학을 몇 가지로 구분하면서 ‘통일신학’을 언급하고 있다. 우선 그는 문익환의 신학을, ‘해방의 신학’, ‘시 신학’, ‘예언자 신학’, ‘민중신학’ ‘통일신학’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해방의 신학’에서는 문익환이 방북 이후

50) 문익환, 『문익환 옥중 서한집,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입니다』 (서울: 삼민사, 1991), 208.

51) 앞의 책, 208.

52) 문익환, 『문익환 전집』 4권, 28.

감옥 들어갔을 때, 어머니 김신묵이 95세의 나이로 72살의 문익환에게 했던 말을 상기시킨다. “익환아! 너는 우리 7천만 민족을 위해 일하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 심정으로 재판을 받아라! 익환아, 그것을 기억해라!”<sup>53)</sup>는 말 속에서 문익환의 해방신학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방신학적 운동 또한 문익환의 ‘통일신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현정 목사는 문익환의 신학을 분류하면서 독특하게 ‘시(詩) 신학’과 ‘감옥 신학’이라는 말을 쓴다. 문익환의 ‘시 신학’은 이미 알려진 대로 성서 번역가 문익환이라는 측면과 문익환 스스로 써낸 수많은 시로 이미 입증되고 남는다. 그 시들 또한 민족해방과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가득한 것으로 보면, 문익환의 ‘시 신학’도 일부는 통일신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언자 신학’에서는 고난받는 예언자 예레미야와 문익환을 대비하고 있고, ‘민중신학’에서는 문익환의 역작인 『히브리 민중사』에서 민중 전승을 이끌어 낸다. 그리고 ‘통일신학’에서는 통일의 시급성을 말한 문익환의 주장과 필연성을 넘어서 “남과 북의 이념과 체제가 하나로 통일되는 신학으로, 남쪽의 자유주의에 기초한 자유 사상과 북쪽의 사회주의에 기초한 평등사상이 만나는 신학”으로서의 통일신학을 말하고 있다. 특히 그러한 통일신학은 무엇보다 민중신학과 주체사상과의 대화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sup>54)</sup> 이처럼 조현정 목사가 말하는 문익환 신학과 사상이 민족해방과 통일신학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 2.3. 민중신학과 통일신학

### 2.3.1. 민중신학의 성서적 전거

민중신학의 성서적 근거와 그 출발점은 역사적 예수로부터 시작된다. 한국에서 민중신학을 정초한 안병무는 마르코복음서를 중심으로 5가지 관점에서 민중신학의 성서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55)</sup>

53) 조현정, 『갈라진 땅에선 예수』 (서울: 동연, 2021), 62-67.

54) 앞의 책, 62-104.

55) 안병무, 『민중과 성서』 (서울: 한길사, 1993), 211-218.

첫째, 예수 사건의 재발견이다. 이 부분에서 안병무는 민중신학은 성서의 재발견과 한국 민중의 재발견이 마주침으로써 생겨난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2천 년 전의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의 운명이 오늘 우리 한국과 구체적으로는 1970년대의 정치적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와도 결부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코복음서의 예수와 민중의 재발견이 민중신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둘째, 마르코복음과 민중의 관계다. 헬레니즘의 지식인을 대상으로 했던 바울의 변증 신학과는 달리 마르코복음서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이야기로 끝나는 민중의 언어로 된 서술이다. 마르코의 언어는 교리화된 ‘그리스도’의 차원이 아니라 민중과 함께 있는 행동하는 예수다. 안병무는 마르코복음서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오클로스(ὄχλος)<sup>56)</sup>’라고 부른 점(마르코 2:4)에 대해 충격을 접한다. 마르코복음서에 36회나 언급되는 이 단어는 노예, 고용병, 농노 등의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명사라는 점이다. 오클로스와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가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윤리적 보장도 다짐하지 않고 오클로스를 무조건 수용한다는 것이다. 예수는 이러한 버려진 상태에 있는 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귀는 것이다.

셋째, 민중은 수단이 아니다. 성서에서 바리사이파와 율법주의자들이 민중을 수단화했던 것에 비해 예수는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압제의 수단이 되는 이데올로기와 싸운다.

넷째, 민중은 객체일 수 없다. 안병무는 ‘민중’을 개념화하여 고착시키는 객체화를 거부한다. 그리하여 그는 ‘마르코복음서에서 민중을 찾아볼 것’을 권한다. 예컨대, 마르코가 전한 예수의 모습을 통해 민중의 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예수와 오클로스의 관계가 중시된다. 그렇게 될 때, 갈릴리의 민중과 예루살렘의 민중에 대한 불필요한 구분이 사라진다.

다섯째, 십자가는 민중 수난의 극치다. 안병무는 예수의 수난사는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민중의 애환을 극적으로 표상한 것으로 설명한다. 마르코복음서 안에는 비리와 물리적 힘이 난무한다. 힘없이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만 찾다가 죽어

---

56) 안병무는 오클로스의 특징에 대해 7 가지를 들어 설명한다. 첫째, 예수가 가는 곳에는 어디나 민중(오클로스)이 있다. 둘째, 예수는 민중과 식탁을 함께 했다. 셋째, 오클로스를 예루살렘과 대립시킴으로써, 예루살렘에 대립된 예수와 오클로스의 연대성을 드러내고 있다. 넷째, 오클로스는 집권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다섯째, 예수는 오클로스를 ‘목자 없는 양’(마르코 6:34)처럼 보았다. 여섯째, 예수는 이 오클로스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로 선언한다. 일곱째, 예수가 오클로스에게 대해서 어떠한 윤리나 종교적 평가도 내리지 않는다. 안병무, 『갈릴레아의 예수』(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19), 138-141.

간다. 예수의 죽음은 악의 힘과 그 악의 순환을 끊어내고(斷), 민중의 길이 옳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얻어내는 사건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5가지 측면에서 안병무는 민중신학의 성서적 근거를 마르코복음의 오클로스 개념에서 찾고 있다. 오클로스 개념이 예수와의 만남이라는 관계 속에서 더욱 분명해졌는데, 예수는 기존의 메시아 상에 일치시킬 수는 없고, ‘와야 할 그이’로 안병무는 해석한다.<sup>57)</sup> 성서에서 ‘오실 그이’는 메시아다. ‘오실 그이’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예수는 ‘옳다’, ‘아니다’라는 말 대신에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고 절뚝발이가 걷고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루가 7:22).”고 말한다. 이는 실제로 예수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했던 것을 반증한다. 세례요한이 체포되고 난 후 예수는 갈릴래아로 간다. 그는 세례요한의 체포와 죽음을 낚은 시대의 종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다.<sup>58)</sup>

예수의 소명은 갈릴래아에서 분명해진다. 예수의 해방자로서의 소명은 정치 경제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안병무는 주장한다.<sup>59)</sup> 그렇다면 예수와 갈릴래아의 관계는 어떠한가? 시기로는 세례요한이 잡힌 직후(마르코1:14)이다. 위험한 시기에 예수는 갈릴래아의 오클로스와 함께 하기를 결행한다. 갈릴래아는 지역적으로도 통치자 헤로데가 죽으면서 분배하여 유대지방과 갈라지고 베레아지방과 합해져서 안티파스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두고 안병무는 갈릴래아를 창기(娼妓)에 비유하기도 했다.<sup>60)</sup> 이러한 이유 등으로 갈릴래아는 봉기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는 예루살렘에 거점을 둔 기득권의 지배층에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리하여 갈릴래아 사람들은 ‘불순분자’로 낙인찍히게 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도 “당신도 저 갈릴래아 사람 예수와 함께 다녔지요?(마태 26:19)”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갈릴래아와 관련된 일련의 예수운동은 하나님의 나라와 결부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나라라는 뜻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지역이나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 세계적 실재라는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성서의 구절은 마태오복음 8장 11절이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석 하겠고 ... ” 또한

57) 안병무, 『갈릴래아의 예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19), 40.

58) 앞의 책, 80.

59) 앞의 책, 90.

60) 앞의 책, 94.

하느님의 나라는 ‘보물’을 찾는 ‘기쁨’에 비유되기도 하고, 나누어 먹는 ‘밥상 공동체’로도 표현된다. 이러한 ‘기쁨’의 잔치를 위해 예수는 투쟁했다. 예수는 은둔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투쟁했다. 예수가 만난 사람들은 병자들을 포함한 민중들이었다. 어부와 세리 그리고 젤롯당도 있었다.

이상과 같이 민중신학은 예수와 이스라엘의 오클로스와 관계에서 분명해졌고, 그 활동무대는 갈릴래아를 중심으로 한 예수의 민중해방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민중신학의 성서적 기반이 문익환의 통일신학과 어떤 접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 2.3.2. 문익환의 ‘민에 의한 통일신학’

문익환이 통일신학을 전개하는 출발점은 우선 서구신학의 이원론을 극복하자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더구나 분단 조국의 통일을 말하기 위해서는 서구식, 혹은 그리스적 사유에 물든 이원론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영과 육의 투쟁이나, 선과 악마와의 투쟁과 같은 대립적인 사고가 문제라는 것이다.<sup>61)</sup> 두 번째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자유와 평등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다. 자유가 평등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만을 위한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마르크스가 강조한 평등이 자유를 희생시키는 결과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익환은 “자유와 평등이 둘 다 선인데, 자유 없는 평등은 선이 아니고 악이며, 평등이 없는 자유는 선이 아니고 악이다.”<sup>62)</sup>고 말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익환은 기독교 내부의 이원론 극복이 시급하다고 제안한다. 이원론에 사로잡힌 기독교인은 ‘사팔뜨기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 눈으로는 세상의 나라를 보고 한 눈으로는 하늘나라를 본다는 것이다.<sup>63)</sup> 따라서 ‘사팔뜨기’ 기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둘을 하나의 초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속(聖俗)의 구별을 어떻게 없애느냐는 문제가 된다. 그리하여 문익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61) 문익환, 『전집』 11권, 371.

62) 문익환, 『전집』 11권, 372.

63) 앞의 책, 373.

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양분해서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이원론적인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입니다.<sup>64)</sup>

이는 문익환이 서구신학의 이원론을 극복해야 하는 필요성을 말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마찬가지로 논리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통일신학도 이원론의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민족, 하느님 나라의 통치 영역이라는 하나의 초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익환은 구약성서 학자로서 『히브리 민중사』라는 책을 통해 그의 신학 사상을 전개하였다. 그 가운데서 그는 히브리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동일하게 설명하면서도 ‘히브리’라는 말이 고대 근동에서 널리 유포되었던 ‘하피(비)루’처럼 천민을 가리키는 말이었음을 상기시킨다.<sup>65)</sup> 그리하여 문익환은 구약성서에서 맥박치는 하느님의 역사는 히브리 민중사로 시작된다고 하면서, 이 민중사의 주체인 히브리인들은 당연히 해방되어야 하는 밑바닥 계층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적 약자들을 포괄하는 총칭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을 구원하는 하느님의 출애굽 역사는 오늘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일맥상통하는 통일신학적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익환이 말하는 ‘성숙’ 일치의 해방과 구원론이기도 하다.

---

64) 앞의 책, 374.

65) 앞의 책, 17.



### 3. 문익환 통일운동의 뿌리와 전환

#### 3.1. 문익환 통일운동의 뿌리

문익환 목사의 통일운동의 역사적 뿌리는 그가 태어나고 자라난 환경과 가계(家系)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1984년 6월 3일에 시행한 목민선교회 강연에서 “역사를 보는 눈”<sup>66)</sup>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바 있다. 그 내용에 보면, 그가 태어난 직후인 9개월 이후에 3·1운동이 발생했고, 어머니는 용두레 우물이 있는 용정으로 달려가서 만세를 불렀다. 그때 일본사람이 쏜 총알이 어머니 가슴을 살짝 비껴나가 옆 사람의 가슴을 쏘아 죽였다. 그는 17살의 나팔수였다. 그날 이후 그 죽음의 희생 위에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같은 것이 평생 문익환을 떠나지 않고<sup>67)</sup> 빛진 자로서의 민족의식이 민족운동과 통일운동 뿌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25년 명동 소학교에 입학한 후 운동주, 송몽규 등과의 학업에 이어, 1932년 은진중학교에서의 강원용, 안병무와의 사상적 교류 등은 민족의식을 배양하는 데 가장 큰 거름이 되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일제에 항거하던 운동주의 죽음은 그에게 민족주의 사상의 발로에 큰 자극을 주었다. 그 이후 조선신학교의 김재준에게서 예언자적 참여 신학의 사상적 영향을 받게 된다.

4·19에도 문익환은 뼈아픈 경험을 한다. 그가 개척한 한빛교회 교회학교 유년부 부장이 경무대 앞에서 가슴에 관통상을 입고 죽는 아픔도 경험한다. 그는 민주당 청년이었는데, 그날 아침 유서를 써서 문익환에게 남기고 거리로 나가 항거를 하다가 죽은 것이다. 그 이후 장준하의 죽음을 맞아 그의 시신을 땅에 묻으며 맹세를 하게 된다. “네 뜻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마”, “네가 하려다가 못다한 일을 하마”, 이 두 가지 맹세가 그를 민족운동과 통일운동에 나서게 하는 또 하나의 큰 뿌리가 된다. 그러면서 그는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민주구국선언’을 작성하고 “민족사의 분류 속으로” 뛰어들게 된 것이다.<sup>68)</sup> 이른바 「3·1 민주구국선언」은 문익환이 법정 재판과 관련하여 제시한 「상고이유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장준하의 죽음을 두고 맹세한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는 내용이었다.<sup>69)</sup>

66) 문익환, 『통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서울: 학민사, 1984), 11-28.

67) 앞의 책, 11.

68) 앞의 책, 12.

홍근수 목사는 문익환 목사에 대해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 평가한다. “문익환 목사는 평범한 사람으로 있다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등장한 구약시대의 예언자와 같은 분이다.” 그만큼 남북한을 막론하고 민족사에 충격을 주고 영향력을 준 인물이 드물다고 보았기 때문이다.<sup>70)</sup> 문익환의 통일 사상이 발아하기 위한 사상적 뿌리에 대해서, 이해학 목사는 구한말 문 목사의 가족이 만주로 이주할 때 120여 명의 인원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김신묵 권사의 가족과 운동주 시인의 가족이 함께 거주했던 역사적 자리를 언급한다. 그때 북간도 명동촌에 이주한 주민들은 대개 동학혁명이 실패한 직후에 쫓겨 다닌 사람들이었고, 김신묵 권사의 가족도 동학혁명에 관련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거주지는 동시에 항일투사들이 러시아로 망명하는 통로이자 항일투사들의 활동 근거지였다는 점이다. 더구나 문익환 목사의 아버지 문재린 목사는 『독립신문』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네 차례나 투옥되기도 했다.

이러한 아버지 문재린의 독립운동과 민족해방을 위한 노력은 훗날 문익환이 ‘네 번째 감옥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버지에게 보내는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회고하고 있다.

제가 이리로(감옥) 걸어 들어오던 날 저는 아버님이 입으시던 잠바를 입고 있었고, 아버님이 신으시던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으로 아버님과 동급(4번 감옥)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저와 같이 들어오셨으니, 아버님은 별이 다섯이 된 셈이니까, 역시 저보다는 한 급 위입니다. ... 이제까지는 하늘마음이 이 땅에서도 자유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갈라진 마음들을 묶어 하나의 큰마음으로 만드는 일 외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 일을 위해서 몸에 불을 지르고 죽어 가는데, 70을 다 산 사람이 무얼 더 원하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90을 그 한마음으로 살다 가신 아버님의 마음과 한 치 어긋나지 않으니까 안심하십시오.<sup>71)</sup>

이러한 가족의 배경이 문익환의 ‘민족목회’ 의식을 싹틔우게 했던 뿌리가 된다고

69) 문익환, 「상고이유서」, 『문익환전집』 5권, 129.

70) 김거성, 박종화, 이해학, 홍근수, “통일운동의 현단계와 문익환 목사의 통일론,” 「신학사상」 85집(1994/여름), 7.

71) 문익환, 『통일을 비는 마음』 (서울: 세계, 1989), 5-7.

이해학 목사도 주장했다.<sup>72)</sup> 이렇듯 문 목사는 한말의 민족운동과 그 이후 일제강점기의 항일투쟁, 그리고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이라는 사상적 계보를 잇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 계보와 뿌리에 대해 홍근수는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기독교 신앙이며, 둘째는 민족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의식을 바탕으로 ‘예수 해방의 복음’과 ‘민족해방 전통’이 만났다는 것이다.<sup>73)</sup> 이에 대해 김거성은 문익환 목사의 사상에 있어 시인, 신학자, 통일운동가의 뿌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일관하는 근본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근수가 문익환의 사상적 뿌리를 기독교와 민족주의라는 두 가지 각도에서 조명했다면, 김거성은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자 했다.<sup>74)</sup> 이 점도 중요하지만 홍근수는 문익환의 압도적인 관심이 민족해방운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 3.2. 문익환의 생애사적 전환과 통일 의지

이유나는 1978년 문익환이 『씨울의 소리』에 게재한 글을 통해, 문익환의 통일 인식을 네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통일 한국은 동북아의 정치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통일 한국은 국방비를 줄여 북한과 민중의 경제 파탄을 해소시킬 수 있다. 셋째, 통일의 주도권을 우리 국민이 자주적으로 잡아야 한다. 넷째, 민주화와 통일은 둘이 아닌 하나다.<sup>75)</sup> 이러한 문익환의 통일인식은 그의 통일운동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문익환 평전』을 쓴 김형수는 문익환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서(端緒)를 제시한다. 첫째, 문익환의 위대성은 ‘정치적 결단의 순간’이 아니라 ‘지난한 연민의 과정’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한 연민’이라 함은 송몽규, 장준하, 운동주와 같이 절벽 같은 현실에 맞섰던 동시대의 선각자들에 비해 스스로 ‘피할 것’을 택했던 젊은 날의 과정에 대한 묘사에서도 드러난다. 6·25 전쟁 때에는 오히려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통역했다. 하지만 그는 국가체제에서는 ‘실정법 위반’이 되는 일도 하느님 앞에서는 옳은 일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러한 확신으로 문익환은 이른바, 세 차례의 ‘돌발 사건’을 야기한다. 이는 김형수의 표현에 따르

72) 김거성, 박종화, 이해학, 홍근수, “통일운동의 현단계와 문익환 목사의 통일론,” 9.

73) 앞의 논문, 10.

74) 앞의 논문, 11.

75) 이유나, “문익환의 통일론의 형성과 성격,” 185.

면, 일종의 ‘혁명적 전복성’이다. 예컨대,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사건<sup>76)</sup>,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복역하고 난 이후 민통련 의장을 맡으면서 보여준 급진성, 1989년 방북<sup>77)</sup> 감행, 이 세 차례의 사건만 보아도 문익환은 이제 과거의 ‘지난한 연민’으로만 멈출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통일 역군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가운데서 ‘민주구국선언’ 제3항에 나오는 ‘민족통일’에 대한 선언문은 문익환이 기초한 것으로, 그 내용은 민족통일의 대명제, 민족통일은 개인이나 어느 집단에 의한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통일 방법의 주체성을 다루고 있다.

둘째, 문익환의 방북 사건은 남·북·해외의 민심을 흔든 해방 후 최대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형수는 이 점에 대해 “한반도에서 20세기에 펼쳐진 평화사상의 한 절정”이었다고 평가한다.<sup>78)</sup> 이는 ‘분단의 횡포’가 가로막는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몸부림일 뿐만 아니라, 민족을 ‘죽임’의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에, 그의 통일운동은 “한 민족의 집단감정을 치유하는 생명운동의 제전”에 속한다는 분석이다.

셋째, 문익환은 소모적인 논쟁에 머무는 이론에 매달리지 않고 거대한 하나의 사상적 궤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의 사상적 궤적은 체제나 이데올로기에 쫓이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이 내려준 질서와 생명의 고유 권한에 따른 신성한 궤적이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민족의 영토와 생태 공동체, 언어 공동체, 문화 공동체라는 영역이 인간관계의 범주를 넘어서는 하느님의 영역이라는 의식이 담겨 있다. 따라서 민중의 삶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분단의 통치도 하느님의 신성한 영역을 파괴하는 행위로 본 것이다. 이는 “죽임의 역사를 살림의 역사”로 되살리려고 하는 역사적 통찰로, 향후 통일운동과 인권운동 그리고 환경운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익환의 통일론은 이른바, ‘민통령’으로서의 ‘민(民)’의 통일론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sup>79)</sup>

76) ‘민주구국선언’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고지수, “1970년대 갈릴리교회 지식인들의 민중·민족이해와 분단체제,” 『사람』 제72호(2019), 337-340.

77) 문익환의 방북에 관한 동기와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은 『문익환 전집』 통일 3(서울: 사계절, 1999), 81-84에 자세히 소개된다. 공헌배, “문익환 목사와 통일운동-1989년 평양방문을 중심으로-,” 석사논문(호남신학대학교, 2001), 18-24.

78) 김형수, 『문익환 평전』 (과주: 다산북스, 2018), 12-13.

79) 앞의 책, 20.

### 3.2.1. 재야의 사령탑에서 통일 의지

문익환은 일찍이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라는 깊은 사유를 가지고 민족 통일론을 불태우고 있고, 그의 통일 의지는 재야 사령탑의 활동 가운데 더욱 분명해진다. 1982년 12월 24일 문익환은 31개월의 옥살이를 마치고 바깥세상으로 나온다. 그가 몰두하던 성서 번역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연기되고 만다. 또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억울한 학생의 죽음을 보고도 변변한 성명서 하나 내지 못하고, “70년대의 재야는 박물관의 유적”이 되어 버렸다.<sup>80)</sup> 이렇게 역사의 어두움이 깊어 갈 때 문동환 교수의 발의로 해직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갈릴리교회<sup>81)</sup>가 시국사건으로 고난받는 자들의 안식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익환의 통일신학과 운동에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예컨대, 문익환이 출소 이후 담임을 맡으면서 교회의 위상과 권위도 높아졌는데, 당시 사상범이나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사람들까지 문익환은 모두 껴안고 사랑했다. 이렇게 되자 문익환의 갈릴리교회가 들어있던 한빛교회는 민주인사들의 명소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는 재야인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sup>82)</sup>

1984년 9월 초에 전두환 대통령이 한일 신시대를 연다는 명분으로 일본 방문을 예고하자 문익환은 함석헌, 송건호 등의 재야인사들과 함께, ‘일본 재침략 저지 민족운동대회’를 열어 전두환의 방식은 신식민주의를 자초하는 매국 행위임을 알리는 ‘구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대회장으로 추대된 문익환은 “1984년 9월 6일은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진정으로 국치를 벗어나는 날, 즉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항일의 의지를 이어가자.”고 호소했다.<sup>83)</sup> 그 후 다시 ‘민주통일국민회의(약칭 국민회의)’가 출범하고 이듬해 ‘민민협’을 흡수하며 ‘민주통일

80) 앞의 책, 495.

81) 갈릴리교회는 1970년대에 문익환, 안병무, 서남동 등과 같은 ‘3·1민주구국선언사건’과 관련된 진보적 지식인들이 모여서 유신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논리를 주장하며 ‘민중·민족 이해와 분단체제’에 대한 논의를 주로 했다. 이때 이들이 주로 논의했던 내용은 현실주의적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종교의 ‘비종교화와 세속화’ 논의를 비롯하여, 1975년 긴급조치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성서 기반의 민중 이해를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접근했다는 것이다. 개신교 지식인들의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신학적 자유주의’였으며, ‘민주구국선언’과 같은 담론들이 전개되었다. 고지수, “1970년대 갈릴리교회 지식인들의 민중·민족 이해와 분단체제,” 『사림』 제72호(2019), 317-346.

82) 김형수, 『문익환 평전』(2018), 496.

83) 앞의 책, 497.

민중운동연합(약칭 민통련)'이 결성되어 문익환은 67세의 나이로 의장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문익환이 재야 조직의 사령탑이 되는 것을 주변의 동료들이 만류했다는 사실을 안병무는 이렇게 증언한다.

그가 민통련을 조직하기로 마음을 굳힐 때 그의 민주화 동료들이 말했다. 그것은 그를 둘러싼 젊은이들에 대한 시각의 차이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지만, 무엇보다도 시인이요 목사로서의 그가 어떤 조직을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더불어 자유인으로서의 그를 아끼는 마음도 작용했다.<sup>84)</sup>

안병무가 전하는 동료들의 만류는 크게 두 가지로, '젊은이들과의 시각차'와 '목사와 시인으로서의 재야 사령탑'에 대한 의구심이었다. 그러나 민통련의 대변인을 맡았던 김종철(전 연합통신사 사장)은 문익환의 압도적인 헌신과 탁월한 대승적 기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문 목사는 '어느 노동자가 또는 학생이 분신하거나 투신했다'는 전화만 걸려오면 한밤중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달려갔다. 그는 숲덩이처럼 된 젊은이를 온몸으로 껴안았고, 피투성이가 된 주검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내가 '스승 문 목사'께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은 '한 마음'이었다. 그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절에 가면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큰절을 올렸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일입니다.'라는 유명한 일절도 늦봄의 한마음이 낳은 철학이었다.<sup>85)</sup>

이처럼 문익환 목사는 재야의 사령탑으로서 큰 '한 마음'으로 민중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분단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고난과 질곡을 넘어서기 위한 통일의 예언자와 운동가로서 활약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문익환 목사는 '분신 정국 장례위원장 활동'으로 6번째 감옥에 투옥된 이후 그의 손녀에게 보내는 옥중서신에서 당시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 재야의 선봉에 서서 약 40일간에 걸쳐 치열하게 민주화 투쟁 희생자들을 돌보던 시간을 이렇게 회고한다.

---

84) 앞의 책, 497.

85) 앞의 책, 502.

난 이번 다시 감옥에 들어오기까지 한 마흔 날 동안 행복과는 거리가 먼 슬픈 나날을 보냈다는 거 너 잘 알지? 어쩌면 한 달 동안에 열한 사람이나 맞아 죽고 몸에 불 질러 죽고 할 수 있지? 그 장례식을 치러 주느라 난 정신이 없었다. 그 슬픈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붙들어 주느라고 난 제정신이 아니었던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구나.<sup>86)</sup>

이렇게 문익환은 그의 생애 말년에 이르기까지 6번의 감옥 생활로 10년이 넘는 고된 감옥생활<sup>87)</sup> 속에서도 오히려 “고향 집에 온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sup>88)</sup>고 했던 것처럼, 감옥 밖의 억압받는 민중들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살았던 것이다.

### 3.2.2. 통일의 예언자로서의 문익환

1955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문익환은 전쟁 후 한국 기독교의 혼란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구약의 예언자 신학과 사상을 깊이 받아들인다. 예컨대, 예언자들은 단순한 역사의 해설자들이 아니라, ‘역사를 지어가는 자들’로 인식하고 자신도 그 예언자적 통찰과 용기를 계승하고자 했다.<sup>89)</sup>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민족의 문제를 하느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예언자적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주저 없이 외칠 수 있는 예언자적 용기를 받아야 한다.<sup>90)</sup>

민통련의 사령탑이 된 문익환 목사는 한국 현대사의 궤도를 바꾸기 시작한다.

---

86) 문익환, 『목매는 강산 가슴에 곱게 수 놓으며』 늦봄 문익환 목사 옥중서신 (서울: 사계절, 1994), 12.

87) 문익환의 6번에 걸친 긴 감옥 생활에 대해, 매년 구속된 사유와 구속 기간 등, 옥중편지까지 자세히 기록된 책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봄길 탄생 100주년 기념 편지집, 『사랑의 기록가 박용길』 (서울: 통일의 집).

88) 문익환, 『목매는 강산 가슴에 곱게 수 놓으며』 늦봄 문익환 목사 옥중서신, 10.

89) 이승환, “탈냉전의 선지자, 문익환 통일사상의 현재성,” 「진보평론」 64 (2015), 91.

90) 문익환, 「예언자와 국가」, 문익환전집간행위원회편, 『문익환전집』 제12권(서울: 사계절, 1999), 257.

1970년대와는 다른 형태의 재야운동으로서 그 촉발점은 1985년 5월 23일 서울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이었다. 이는 ‘전국 학생총연합 광주학살원흉 처단투쟁위원회’ 소속 73명의 학생들이 미문화원을 기습 점거한 일로, 광주항쟁의 실상을 폭로하고 군사작전권을 가진 미국에 대한 배후조종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또한 당시 강제징집된 6명의 학생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것에 대해 민통련은 강하게 항의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전의 민주화 운동과 다른 양상으로서 학생운동뿐 아니라, 군사독재에 대한 민중의 민주 의식과 쇄고기 가격 파동에 따른 농민운동, 노조의 임금 투쟁 등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점에 전두환 정권은 ‘학원 안정법’을 내세워 학원 탄압을 시작하려 했고, 이에 대한 반대 투쟁 전국위원회가 결성되어 민통련은 1985년 8월 12일에 천주교, 개신교, 문화계, 노동계, 청년, 지방 부분을 포함한 39개의 운동단체를 이끌고 반대 농성을 시작했다. 하지만 탄압은 강화되었고, 그에 따른 분신자살(건축 노동자 홍기일, 경원대 학생 송광영)이 이어졌다.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주최한 문익환 초청강연회(광주항쟁의 민족사적 의의)가 있던 그 날에 더 이상의 분신자살을 하지 말기를 만류하려던 순간에도 이동수 군이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하며 뛰어내렸다. 이들 젊은 분신자들을 바라보는 문익환의 마음은 참담했다. 경찰이 문익환을 선동죄로 지명수배하자 학생들은 자진출두하겠다는 문익환을 목마로 태워서 노래로 응원하며 경찰에 인도했다. 구속의 사유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이렇게 해서 수차례의 감옥생활을 겪게 된 문 목사에 대해 홍근수 목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문 목사는 감옥생활을 ‘즐거다’ 할 수 있다. 그는 감옥에 가면 좋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이돈명 변호사는 증언하기를 감옥에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문 목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감옥에 갔다가 고생했다면서 “문 목사에게 속았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sup>91)</sup>

이와같이 말하는 홍근수 목사는 문익환의 통일사상을 어떻게 이해했던가? 목회와 신학에 헌신하다가 통일운동에 온몸을 내던진 문익환 목사의 갑작스런 죽음을 대하고 홍근수 목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첫째, 문익환 목사는 ‘통일의 아버지’였다. 백기완 선생은 문익환 목사를 ‘통일의

91) 홍근수, “통일의 예언자 문익환 목사,” 「월간 사회평론 길」 94 (1994/3.), 164.



아버지'라고 불렀다. 문익환은 냉전 반세기의 한반도에서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불가능의 높은 장벽을 깨고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는 가능성을 몸으로 보여 준 지도자다. 둘째, 재야 민주 운동가로서의 문익환이다. 그는 1976년에 처음 감옥에 들어간 이후 17년간 여섯 차례나 감옥을 드나들었고, 10년 3개월을 옥중에서 생활했다. 옥중생활을 통해 그는 인생과 민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남달랐을 것이다. 셋째, 혁명적 민족시인이었다. 그는 통일과 평화를 비는 마음으로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벗들이여!

이런 꿈은 어떻게?  
155마일 휴전선을

헤뜨는 동해바다 쪽으로 거슬러 오르다가 오르다가

푸른 바다가 굽어 보이는 산정에 다다라

국군의 피로 뒤범벅이 되었던 북녘땅 한 삼

공산군의 살이 썩은 남녘땅 한 삼씩 떼서

합장을 지내는 꿈,

그 무덤은 우리 오천만 겨레의 순례지가 되겠지.

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다 보면

사팔뜨기가 된 우리의 눈들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꿈 말이외다<sup>92)</sup>

위의 시는 문익환의 통일 의지를 잘 보여준다. 홍근수의 지적대로, “좌도 우도 아닌 것이 아니라, 좌도 우도 다 같이 한겨레가 되는” 길을 읊고 있다.<sup>93)</sup> 분단논리와 흑백논리가 아닌, “크게 생각하라. 그리하면 작은 것들이 저절로 온다.”고 했던 문목사는 그의 말처럼 실제로 그렇게 통일운동을 전개했다.

92) 문익환, “꿈을 비는 마음,” 『씨울의 소리』 68 (서울: 씨울의소리사, 1977/10), 8-10, 문익환, 『꿈을 비는 마음』 (서울: 백범사상연구소, 1980), 60-61

93) 홍근수, “통일의 예언자 문익환 목사,” 『신학사상』 85 (1994), 160.

### 3.3. 문익환의 통일 사상

#### 3.3.1. 민족해방을 위한 통일 사상

홍근수는 문익환 목사를 “진정한 민족주의적 정신으로 살았고, 민족을 통일하기 위해 혼신을 바친 ‘경건한’ 민족주의자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를 ‘경건한’ 민족주의자라고 했던 까닭은 그의 민족주의가 그의 종교신앙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마디로 그는 기독교에 접목된 통일신학을 확립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수적이거나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구약 성서학자로서 지냈던 모세와 같은 뜨거운 민족애를 지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익환이 민족주의 정신을 함양하게 된 것은 북간도에서의 청소년 시절부터였다. 그는 미국과 일본에 대하여 경계하였고, 두만강 경제특구 또한 이권을 외세에 넘겨주는 것도 반대했다. “미래의 아시아 경제는 두만강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보았던 이유 때문이라도 통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홍근수의 지적에 의하면, “문 목사가 연방제를 버리고 국가연합으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변절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문 목사는 그 명칭 같은 것에 그리 구애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익환 목사는 남북이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통일을 하려면, ‘남북연합’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느슨한 연방제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보았다. 통일 이후에 통일정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통일 작업을 하는 정부를 세우자는 것이고, 이것을 정치학에서는 ‘국가연합’이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남북연합’이라고 부른다. “북쪽에서는 내 제안을 받아들여 92년 초 신년사에서 그 말을 하기 시작했다.”<sup>94)</sup>고 문익환은 주장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족해방을 위한 통일운동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래서인지 방북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나는 이번에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가슴과 눈으로 하는 대화를 하러 왔습니다. 어느 한편을 이롭게 하고 한편을 불리하게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길을 찾아왔습니다.<sup>95)</sup>

94) 앞의 논문, 161.

95) 문익환, 「상고이유서」, 124.

이러한 민족통일론에 입각하여 문익환은 그 실천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정치 우위 회복. 둘째, 한반도 긴장 완화. 셋째, 상호신뢰 조성. 넷째, 통일의 민족과업. 다섯째, 북의 정치적 자유. 여섯째, 남의 경제체제 변화. 일곱째, 자주적 외교.<sup>96)</sup>

### 3.3.2. 민중해방을 위한 ‘민(民)’의 통일 사상

문익환은 관 주도의 통일운동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1989년에 방북을 결행한다. 이는 그의 민중해방을 위한 ‘민의 통일’ 방식을 웅변해 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그의 시 ‘잠꼬대 아닌 잠꼬대’를 보아도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 땅에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 서울역이나 부산, 광주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일이라고.<sup>97)</sup>

이 시는 문익환이 1989년 3월 25일 방북하던 그해 첫 새벽에 기록했다. 그의 시 첫 소절을 살펴보자.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지 불과 3개월 남짓 후에 용기 있게 방북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의 이러한 역사적 통일운동 사건은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전환기와도 맞물려 있다.

난 올해 안으로 평양에 갈 거야  
기어코 가고야 말 거야 이걸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누가 시인이 아니랄까봐서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또 펼치는 거야  
천만에 그게 아니라구 나는  
이 1989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 거라고  
가기로 결심 했다구

96) 이유나, “문익환의 통일론의 형성과 성격,” 189.

97) 문익환, 『문익환전집 2권』 시집2 (서울: 사계절, 1999), 13.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 있지 않아  
 모란봉에 올라 대동강 흐르는 물에  
 가슴 적실 생각을 해 보라고  
 ...  
 나 그들을 괴뢰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인민이라고 부를 생각도 없어  
 동무라는 좋은 우리말 있지 않아  
 동무라고 부르면서 열 살 스무 살 때로  
 돌아 가는 거지<sup>98)</sup>

방북 사건은 언론의 비난과 정부의 탄압으로 이어졌지만, 민족적 과업의 실천을 온 몸으로 담아내는 것임과 동시에, 정부나 관 주도로 불가능했던 장벽을 열고자 한 ‘민의 통일’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었다.

문익환의 통일 사상은 단연코 민족해방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분단의 가장 큰 희생자인 민중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무시할 수 없는 통일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문익환은 노동자, 농민, 학생, 도시빈민, 장기수, 민가협 어머니들 등 고난 받는 민중과 함께 울고 같이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민중의 목사였다. 이러한 고난받는 민중에 대한 깊은 연민이 민족분단에서 오는 고통으로 더욱 심화 고착되는 것을 알고 민족통일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더욱 제고해 갔다.

1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은 물론, 신의주학생사건, 거창 양민학살사건, 제주 4·3사건, 여수·순천사건, 부마, 광주, 4·19, 인혁당 사건 등 수많은 억울한 사건들이 분단으로 인한 상처들이기에 이들의 아픔과 한을 깊이 공감한 문 목사는 분단극복을 위한 치유와 해방의 차원에서 방북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문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민중은 민족의 실체다. 민중이 왜 이렇게 못사느냐?”고 통분하면서, 남북한의 국방예산이 민중을 못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방북 목적을 묻는 질문에 그는 “장벽을 깨는 작업”이라고 짧게 대답한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남쪽의 민주 세력은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노력이 부족했다. ...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또 한쪽의 조국을 확인하고 싶다. 상징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98) 문익환, 『두 하늘 한 하늘』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9), 3-4.

장벽을 깨는 작업이다.<sup>99)</sup>

홍근수는 이 점에 대하여, “불의한 법, 반도덕적이고 반인도적이며, 반민족적,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 때문에 민족의 통일 과업이 유기되거나 지연될 수 없다는 것을 문 목사는 몸으로 소리 지른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sup>100)</sup> 이러한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문 목사는 법정 변론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그동안 이 나라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 영달 같은 것은 초개처럼 생각하는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 ... 그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잡아 죽이는 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때려잡는 법이었어요. ...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정부를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게 하는 법입니다. 한 입으로는 북괴! 또 한 입으로는 민족 공동체 ... 제가 갔다 와서 혼란을 일으켰다구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의 근원은 바로 국가보안법에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모든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sup>101)</sup>

이처럼 문 목사는 법정에서까지 모든 혼란의 근원이 되고 있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민족 공동체의 회복인 진정한 통일운동을 펼쳤다.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리영희 교수가 말하는 바와 같이 ‘국가안보의 개념’을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한 국가의 안보는 순수 군사력에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 그 국가사회의 전반적 체제와 기능, 이익과 기회의 균배(均配), 맹목적이 아닌 이성적인 민족애와 애국심 등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sup>102)</sup>

이처럼 문익환은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분단은 민족의 죽음이요, 통일은 민족의

---

99) 홍근수, “통일의 예언자 문익환 목사,” 『신학사상』 85 (1994), 162.

100) 앞의 논문, 162.

101) 앞의 논문, 162.

102) 리영희, 『전환시대의 논리』 (서울: 창비, 2020), 285.

부활이다”라고 확신하면서 분단극복의 민중·민족적 해방을 위해 방북을 결행했다. 문익환의 통일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민(民)’의 통일론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통일은 사실 민의 통일이다. 정부는 국토통일이다. ... 통일은 국토를 통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을 통일하는 것이, 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sup>103)</sup>

민의 힘을 믿는 그는 민에 의한 통일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든다. 첫째, 남한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인 이인모씨를 북한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하여 남한의 민이 압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했던 일이다. 둘째, 임수경 양이 북한 방문 때에 북한 동포가 열렬히 환영한 것이다. 셋째, 인도네시아에서의 남북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서로 반칙 없이 화기애애하게 치루었던 일이다. 이러한 것들이 한 핏줄이 지니는 민에 의한 통일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문익환은 관 주도의 통일을 믿지 않았다. 지난 세월 동안 관주도로 이루어진 통일의 진척이란 도무지 보이지 않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도대체 지난 50년 동안 관이 통일을 위해서 한 게 뭐니까? 한 게 뭐예요? 정말 욕심 없이 민족을 생각하여 통일운동을 해온 민을 탄압한 일 밖에 더 있어요?<sup>104)</sup>

문익환은 민에 의한 통일이 아니고 흡수통일 같은 힘에 의한 통일은 국토통일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통일이 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진정한 통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른바 아무렇게나 통일을 하자는 통일지상주의는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진정한 통일은 뭐냐? 그것은 남쪽의 이념인 자유와 북쪽의 이념인 평등을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자유를 배제하는 평등도 아니고, 평등을 배제한 자유도 아닌, ... 평등과 하나됨으로써 진정으로

103) 홍근수, “통일의 예언자 문익환 목사,” 163.

104) 앞의 논문, 163.

자유가 될 수 있고, 자유와 하나됨으로써 참 평등도 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숙명적인 일이다. 그  
런 통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sup>105)</sup>

문익환의 통일 사상에서 분명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밝혀졌다. 남쪽이  
주장하는 자유의 개념과 북쪽이 강조하는 평등의 개념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사회  
와 국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통일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민  
에 의한 통일’ 주장은 이해학 목사의 입을 통해서도 증언되고 있다.

그러니까 통일에서 정부의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민의 역할이라고 본 것입  
니다. 민의 역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민중이 힘을 키워서 통일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바로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 온몸으로 뛰었다고 할  
수 있지요.<sup>106)</sup>

‘민에 의한 통일론’은 안병무의 통일이론에서도 분명해진다. 안병무는 정의와 평  
화의 실현을 위한 ‘민의 통일론’을 강조하는데, 거기에는 다섯 가지 원칙이 있음을  
강원돈이 밝히고 있다. 전쟁배제의 원칙, 민중의 통일 주도성, 민중의 관점에서 분  
단체제의 해체, 공공성을 위한 소유권 주장의 제한, 민중의 실질적 권력 통제 등이  
다. 이처럼 ‘민에 의한 통일론’은 당시 진보적 신학자와 지식인 사회에서 공통적으  
로 볼 수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sup>107)</sup> 이는 또한 장준하가 “통일은 처음부터 끝까  
지 민중의 일이다.”<sup>108)</sup>라고 한 민중통일론을 계승하고 또 승화시키고 있다. 참고로  
안병무의 통일이론에서 ‘민’에 의한 통일과 정권(집권층)에 의한 통일론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민에 의한 경우는 국제적 세력에 예속되지 않고, 무기 행사권이 없으며, 사상이나  
제도보다 정과 피에 얽히고, 절대다수의 지지가 가능하며, 민주화 운동으로 통일을  
쟁취하는 길을 튼다. 또한 민은 민족의 실체를 ‘씨울’ 곧 민중으로 보며, 이는 국가

---

105) 앞의 논문, 164.

106) 김거성, 박종화, 이해학, 홍근수, “통일운동의 현단계와 문익환 목사의 통일론,” 13.

107) 강원돈, “정의로운 평화와 ‘민에 의한 통일’ - 심원 안병무 선생의 통일이론,” 「신학사  
상」 155 (2011/겨울), 141-171.

108) 이승환, “탈냉전의 선지자, 문익환 통일사상의 현재성,” 92.

와 법이 있기 전에 존재한다. 반면에, ‘정권’의 경우는 외세의 간섭을 받게 되고, 무력행사를 하며.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벗어나지 못한다. 권력야욕으로 민족을 분열시키고,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며,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족의 의사를 펴는 일에 제한적이다. 또한 분단을 고착화하고 통일 의지가 부족하고 북한을 고립시킨다.<sup>109)</sup> 이상에 나열한 것들이 민의 통일 주도 방식과는 다른 정권을 가진 집권층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때 어떤 방식의 통일운동을 해야 하는지는 더욱 분명해진다.

### 3.3.3. 평화·통일운동사상

문익환 전문 연구자인 이유나는 문익환의 평화 사상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것은 생명평화, 민주평화, 통일평화다. 생명평화는 생명존중 사상으로 인간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의 가치를 논하는 것으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서 인간에 대한 ‘생명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는 시민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보편적으로 인권이 보장된 상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의 편재를 없애고 빈곤의 극복을 통한 정의와 평등에 입각한 평화를 말한다. 통일평화는 한반도의 민족통일을 통한 평화다.<sup>110)</sup>

이유나의 이러한 평화의 구분은 의미 있는 구분이지만, 문익환에게서는 사실 생명-민주-통일이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적인 역동적 조화의 관계를 지니는 것이다. 개인의 생명이 중요하듯이, 이웃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민주사회의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동시에 분단된 국가의 상황에 대입하면 반드시 통일평화가 필연적인 귀결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문익환은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든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전쟁이지만, 단순히 전쟁만 없어진다고 해서 평화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에, 한반도의 평화도 그 불행의 근본 원인인 분단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전쟁을 막는 것만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

109) 안수강, “안병무의 민중론에 기초한 통일 분석,” 「기독교사회윤리」 제40집 (2018), 108.

110) 이유나, “문익환의 평화·통일 사상 담론과 성찰,” 「신학사상」 188 (2020/봄), 192-198.



는 근 30년 동안 전쟁 없이 살아왔습니다.<sup>111)</sup>

문익환에 따르면 전쟁을 막는 것을 평화운동의 출발로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평화운동의 본령은 평등사회의 건설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도적 장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에 의한 해결을 찾는 것이지만, 그 ‘민’의 통일운동도 바로 ‘평등’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문익환은 이렇게 말한다.

평화의 평(平)은 높낮음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화(和)는 입에 들어가는 양식이 고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요. 평등이라는 말에는 없는 기쁨이 평화에는 내포되어 있는 거죠.<sup>112)</sup>

문익환이 생각하는 평화는 생명의 환희와 존재의 기쁨이 내포되는 상태다. 평등은 수단이고 평화가 목적인 셈이다. 평등이 사회적인 약속을 재조정해야 하는 일이라면, 평화는 신이나 우주, 자연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상태까지를 말한다. 그리하여 예수의 치유 활동도 “예수의 특이한 평화운동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성서의 평화는 이지러짐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다. 하느님의 상태라고 성서적 평화를 정의한다. 그러한 평화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완전한 평화이지만,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불의를 보고 폭발하는 사랑, 곧 정의가 평화의 기둥이 된다고 했다. 이러한 정의가 기둥이 되는 평화는 사회 구석구석이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사회다. 이렇게 될 때, 정의는 평등이 되고 불균형을 초래하는 빈곤을 퇴치함으로써 평화를 회복한다는 것이다.<sup>113)</sup>

그런데 문익환에게서 더욱 흥미로운 평화사상은 “민족 통일이 평화의 문제”라는 것이다. 통일은 물론 핵전쟁의 위험요소가 있는 분단의 극복이다. 이는 이 민족의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다. 평화가 이처럼 민족생존의 문제라면 평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111) 김형수, “문익환의 평화사상: 그의 ‘발바닥 언어’가 지상에 기록한 것들에 대하여,” 『한국의 평화사상 II』 (서울: 인간사랑, 2018), 236.

112) 김형수, “문익환의 평화사상: 그의 ‘발바닥 언어’가 지상에 기록한 것들에 대하여,” 237.

113) 문익환, 『통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1984), 15-16.

모든 운동은 평화에 이바지할 때에만 선이 된다.<sup>114)</sup>

모든 운동은 평화 지향적이어야 함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평화 지향적이지 않은 민족주의는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아시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가 오히려 중요한 평화의 고리가 될 수 있는 시점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민주화도 평화운동이요, 민족통일도 평화운동으로 귀결된다고 보았다.<sup>115)</sup>

문익환 목사는 나름대로 1995년을 통일의 희년으로 보았는데, 홍근수의 지적대로 그는 세 가지의 절박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민중적 절박성’이고, 둘째는 ‘민족적 절박성’이며, 셋째는 ‘평화의 절박성’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민중과 민족의 해방론에 입각한 것이고, 세 번째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동북아와 세계 평화와도 연관되는 문제였다. 문익환이 보기에 잘못하면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에 빨리 통일해야 한다고 보았다.<sup>116)</sup>

한편 박종화는 문익환 목사를 독일의 히틀러 치하에서 만나치 투쟁을 했던 마르틴 니뭘러(Friedrich Gustav Emil Martin Niemöller) 목사와 비교하면서, 문익환의 평화통일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문 목사가 유신체제 하에서 투쟁한 것과 그 이후 방북 사건이 니뭘러 목사가 분단 상황이었던 1950년에 소련을 방문하여 독일 통일을 유도하려고 했던 점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니뭘러 목사도 소련 방문에 대해 정부와 교회로부터 용공(容共)이라는 따가운 비난을 받았던 사실을 상기시킨다.<sup>117)</sup> 문 목사와 니뭘러 목사는 모두 ‘적진’을 향해 달려가서 당시의 구도를 깨뜨려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의도를 가졌으나, 일각에서 돌출행동과 용공이라는 비난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돌출행동이 없었다면 독일의 해빙 조짐도 없었으리라는 일부의 평가도 있다. 마찬가지로 문 목사의 방북이 통일운동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박종화는 문익환의 돌출행위도 분단이 고착되는 상황에서 남북은 물론 국제적인 해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평화 통일 운동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

114) 앞의 책, 21.

115) 앞의 책, 28.

116) 김거성, 박종화, 이해학, 홍근수, “통일운동의 현단계와 문익환 목사의 통일론,”(1994), 14.

117) 앞의 논문, 18.

이에 비해 홍근수는 문익환의 저돌적 통일운동의 행동양식을 마르틴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와 비교하기도 했다. 이른바 체제와 이데올로기가 짝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문 목사가 이를 타파해 나갔는데, 마르틴루터 킹 목사도 “교회는 전조등이지 후미등이 아니다.”라고 하여 자동차 뒤에서 따라오며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앞을 비추는 전조등과 같은 역할을 문 목사도 하였다는 것이다.<sup>118)</sup> 일련의 이러한 움직임이 모두 평화통일을 전제로 한 행동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통일의 전개 방식에 있어서나 ‘민주’와 ‘통일’의 우선순위를 논함에 있어서도 문익환 목사는 ‘선통일’의 방법론을 취한 것이라는 것이 홍근수의 지적이다. 민주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선통일’을 위한 정부가 결성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 장준하의 주장과도 맞물린다는 것이다. 문익환의 저돌적 ‘선통일’론이 있기까지 그의 가슴속에 늘 피어오른 평화의 노래 한 편을 들어보자. 1982년 성탄절을 위해 쓴 문익환의 ‘평화’에 대한 노래 전문을 옮겨 본다.

땅은 평화입니다.  
 땅의 마음은 평화입니다.  
 하늘보다 큰 마음  
 바다보다 푸른 마음  
 태양보다 뜨거운 마음  
 땅의 마음은 평화입니다.

땅과 입을 맞추면서  
 발바닥은 부끄럽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것  
 무엇하나 마다않고  
 받아 마시며 피어내는 풀꽃들  
 발바닥은 부끄럽습니다.

활이 아닙니다.  
 칼도 창도 아닙니다.  
 기관총도 대포도 탱크도 아닙니다.

---

118) 앞의 논문, 24.

핵무기 전자무기가 문제입니다.  
그 가공할 살인무기를 만드는 손들  
그 단추를 누르는 것이 자랑스러운 손가락들  
발바닥은 분노합니다.

위대한 인류의 위대한 문명의 그늘 아래서  
배고파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발바닥은 아프고 쓰립니다.

활이 아닙니다.  
칼도 창도 아닙니다.  
기관총도 대포도 탱크도 아닙니다.  
핵무기도 전자무기도 아닙니다.  
평화가 문제입니다.  
하나도 평화  
둘도 평화, 셋도 평화입니다.

은하 성문 밖으로 밀려나는 평화를 보며  
슬퍼하는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평화를 애타게 바라는  
하느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간절한 땅을 딛고 서서  
발바닥은 불이 됩니다.  
뜨거운 땅을 딛고 서서  
발바닥은 불이 됩니다.  
몸은 선 채로 타는 제물이 됩니다.<sup>119)</sup>

### 3.3.4. ‘역사의 통일’ 사상

홍근수 목사에 의하면, 문익환 목사는 세 가지 수준에서 통일을 말하고 있다. 첫째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토통일’, 둘째, ‘민에 의한 통일’, 셋째, ‘역사의 통일’이다.

---

119) 문익환, 『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서울: 실천문학사, 1984), 55.

특히 역사의 통일은 남북한의 분단이 오래됨에 따라 이질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가치관과 역사가 달라지는 데서 통일의 필요성이 점점 절실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의 통일 없이는 진정한 통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국토통일이나 정치적 통일만으로 이룰 수 없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를 풀기 위해 문익환은 ‘칠천만 겨레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sup>120)</sup>

실제로 문익환은 방북 이후 옥고를 치른 다음 그가 생을 마감하기 직전인 1994년 1월 12일 김남식 씨와의 통일 관련 대담에서 칠천만 겨레 모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통일맞이) 준비를 못할 경우 해방 당시에 비해 지금은 더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방 당시에는 일제의 억압을 받아 온 남북 7천만 겨레가 일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갈라져 있고, 사회 계층 간의 갈등도 훨씬 심합니다. 때문에 통일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제 7천만 겨레의 통일 의지를 하나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sup>121)</sup>

이같이 7천만 겨레의 통일맞이 운동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가 통일되지 않으면 이데올로기의 대결은 물론, 사대주의, 친미주의, 민족반역자들 등의 처단으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익환은 예술과 문화, 출판 등이 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쪽으로 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통일 이후의 문제에 대한 통일맞이 칠천만 겨레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통일 이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업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다.

### 3.3.5. 다원화된 통일운동과 문익환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박종화는 문 목사가 통일 운동의 후반부에 취했던 ‘범민련’ 활동에 대해 다소 비

120) 김거성, 박종화, 이해학, 홍근수, “통일운동의 현단계와 문익환 목사의 통일론,”(1994), 15.

121) 문익환, 『전집』 5권, 494.

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범(凡)’이니, ‘전(全)’이니 하는 단체 이름보다는 그러한 단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작은 단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원화된 상황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연대를 이루는 방식으로 운동의 전환이 필요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홍근수는 살림을 분가하면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하여 연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 목사는 통일운동을 크게 보고 그러한 다양성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주장한다.<sup>122)</sup>

이 같은 두 사람의 의견에 대해 김거성은 ‘범민련’이 한계에 부딪혔던 까닭으로 ‘민’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던 노력이 ‘민족회의’의 형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 통일운동이 칠천만 겨레가 하나 되는 민의 통일운동으로 발전한 것이라는 것이다.<sup>123)</sup> 이해학의 표현에 따르면 남·북 공조체제인 ‘범민련’은 “해방 이후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단체”였고, 1992년에 문 목사는 당시 ‘범민련’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정부의 탄압 속에 국민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자, 여성연합단체나 언론노조연합도 떨어져 나갔다. 따라서 재판을 받으면서 새로운 통일운동체를 만들 생각을 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연합회’를 결성했다. 이에 ‘전국연합’과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여러 통일 단체와 연합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를 결성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와중에서도 문 목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것이 아니라 좌와 우가 다 함께 가야 한다는 통큰 결단으로 흔들림이 없었다는 점이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남쪽 정부는 반공법이 있어서 안 되고, 북쪽은 체제가 어떠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통일운동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인 통일세력이 자꾸 밀고 나가면 정부측에서 안 된다고 하면서도 뒷걸음으로라도 들어가게 된다”는 논리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 목사의 자세는 생각보다 훨씬 높고 통이 큰 자세로 통일운동을 이끌었다는 것이다.<sup>124)</sup>

이 밖에도 문익환의 통일 운동에서 나타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문학평론가이자 민족문제연구소장인 임헌영의 다음과 같은 생애사적 평론에서 잘 부각된다.

일흔여섯 생애 중 여섯 차례에 걸쳐 10년 3개월을 옥중에서 보냈던 우리 민족의 겹혀한 심부름꾼. 그는 우리 시대의 어른이자, 한반도라는

122) 김거성, 박종화, 이해학, 홍근수, “통일운동의 현단계와 문익환 목사의 통일론,” 29.

123) 앞의 논문, 29.

124) 앞의 논문, 32-34.

광야를 떠든 예언자며, 어둡고 거친 파도 넘실대는 동서남 3해의 민족사의 등대이고, 설움 많은 민중의 동무이자,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에 맞서는 전선의 척후병이었다.<sup>125)</sup>

임헌영의 이 같은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문익환은 마치 갈릴리의 예수와 같이 “설움 많은 민중의 동무”였고, “민족사의 등대”를 지녔던 카리스마적 리더였다.

### 3.4. 통일의 미래상과 민족목회

#### 3.4.1.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

김거성은 통일의 미래를 결혼에 비유하면서, 통일을 이루는 과정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 문익환 목사가 ‘민족회의’와 더불어 ‘통일맞이’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증언한다. 이에 대해 홍근수는 남쪽과 북쪽이 통일을 향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하나로 되는 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문익환이 가장 중시한 사상이 바로 ‘평등’과 ‘자유’의 관계였다고 말한다. 이는 남북이 서로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이지만 남북한이 서로 이질적인 이념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쪽에서는 ‘평등’을 위해 더 노력하고, 북쪽에서는 ‘자유’를 더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유 있는 평등’, ‘평등 있는 자유’를 말했다는 것이다.<sup>126)</sup> 이렇게 보면 문익환의 통일의 미래상은 균형 잡힌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학문적 통일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재미동포 학자 박한식 교수는 남북통일의 청사진으로서 ‘변증법적 통일론’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변증법적 통일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변증법적 통일론은 남북 간의 특수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국과 조선 간의 현격한 ‘이질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한국과 조선의 이질성을 찾아서 조화시키고 또한 발견해서 꾸준히 진작시

125) 문익환,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 (서울: 사계절, 2018), 206.

126) 김거성, 박종화, 이해학, 홍근수, “통일운동의 현단계와 문익환 목사의 통일론,” 35.

키는 노력만이 통일의 바람직한 길이다.<sup>127)</sup>

이 같은 박한식 교수의 변증법적 통일론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 강세를 보이는 ‘평등’과 남한이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자유’의 문제도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는 변증법적 통일의 관계로 나아가는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3.4.2. 민족목회로서의 통일

문익환 목사의 평양행은 당시로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의 통일운동은 재평가되고 있다. 문 목사의 활동은 교회 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테두리를 넘어서 민족적인 무대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 점에서 문 목사의 활동은 ‘민족목회’라는 이름을 부여해도 좋을 것이다. 백기완 선생 말대로, ‘통일의 할아버지’, ‘통일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문익환은 민족이라는 무대에서 통일운동을 했다. 백기완은 통일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강물에 비유한 바가 있다.

멤돌아도 곧장 앞으로만 가는 강이 있다. 휘돌아 여울져도 곧장 앞으로만 가는 강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강일까? 통일의 강이다. 통일의 강은 속절없이 대지만 흐르질 않는다. 우리네 가슴을 가로질러 캄캄한 역사의 어두움을 갈라치는 강, 온갖 장벽과 허접쓰레기까지를 휩쓰는 강이다. 하지만 그 강물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또 거슬러서도 안 된다.”<sup>128)</sup>

이처럼 백기완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역사의 흐름을 강물에 비유하면서, 바로 그 ‘통일의 강’의 물꼬를 튼 이가 문익환이라는 점을 밝힌다. 이른바 문익환은 그가 호칭한 대로 ‘통일의 아버지’였다. 통일의 물꼬를 튼 문익환 목사가 평양에 갈 무렵에 북한 측에서 새로운 변화와 움직임이 일어났다. 방북 당시의 일련의 구성원들(정경모, 유원호)과 그 이후의 임수경, 문규현, 서경원과 같은 이들은 모두 개신교인과

127) 박한식, 『평화에 미치다』 (서울: 삼인, 2021), 335.

128) 백기완, 『백기완의 통일 이야기』 (파주: 청년사, 2005), 4.



가톨릭교인으로서 이들로 인해 북한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싹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독교는 물론 종교는 더 이상 ‘인민의 아편’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겼다는 것이 홍근수의 주장이다.<sup>129)</sup> 더구나 김일성 대학에 종교학과가 설립되는 이유도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운동이 문익환 목사의 민족목회로서의 통일운동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한국교회에서의 기독교 통일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있는 것이다. 문익환 자신도 “기독교의 근본정신이 화해와 평화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

129) 김거성, 박종화, 이해학, 홍근수, “통일운동의 현단계와 문익환 목사의 통일론,” 39.

## 4. 문익환 통일운동의 기여와 전망

### 4.1. 통일운동의 기여

#### 4.1.1. 방북의 성과

문익환의 방북은 많은 비난과 탄압이 뒤따랐지만, ‘민에 의한 통일’의 열기는 새롭게 타오르게 되었다. 특별히 북한 방문시에 김일성과의 대담은 특별한 변화와 성과를 얻어낸 것들이다. 김일성이 “남한은 정말 통일을 원하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구상하는 ‘체제연합’은 실질적으로 북이 제안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에 매우 가까이 접근되어 있다.”고 답함으로써, 김일성이 비서에게 “오늘 밤 당장 방송하라”고 지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다면 노태우 대통령도 만나지. 김대중 총재, 김영삼 총재, 김종필 총재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고, 집단적으로도 만나지.<sup>130)</sup>

김일성의 이러한 대답은 문익환의 확실한 방북 성과다. 그 이후 임수경과 문규현 신부의 통일운동은 또 다른 차원에서 남북한에 새로운 통일의 물결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현실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지만 ‘민에 의한 통일’의 열망과 행진은 지속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이홍구 통일원 장관도 “정상 회담의 가능성이 생긴 것을 절대 정부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김대중 총재에게 답했다.

방북의 성과는 실제로 문익환-허담의 ‘4·2 공동성명’으로 나타났다. 이 공동성명의 내용은 7·4 공동성명의 강령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는 북한의 조평통과 남한의 전민련이 상호 합의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의 동의기반이 설립되었다는 점이다.<sup>131)</sup> 방북의 성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2 공동성명’ 3항에 있는 ‘경제문화 교류’의 병행추진이다. 방북 이듬해인 1990년에 북한은

130) 문익환, 『가슴으로 만난 평양』 (서울: 삼민사, 1990), 101.

131) 문익환, 『상고이유서』, 180.

남쪽의 음악인 17명을 초대했고 남북 통일축구대회를 추진했다. 이 외에도 중요한 또 다른 성과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 2항에 들어 있는 바대로,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를 두고 이승환은 4·2 공동성명의 성과는 “광주항쟁과 6월 항쟁 등 수많은 투쟁을 거치면서 축적되어 온 통일에 대한 꿈이 남북한 당국을 통일의 문턱까지 끌고 오게 되었다.”고 평가한다.<sup>132)</sup> 물론 이 글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금의 남북관계와 또 다른 분위기이지만, 문익환의 방북이 가져온 일련의 성과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

이남주 또한 방북의 성과를 ‘4·2 공동성명’으로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문익환 통일사상의 주요 쟁점과 현대적 의의를 크게 세 가지로 꼽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4·2 공동성명’이며, 또 하나는 사회개혁의 연장선에서 통일 사상이 전개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부주도의 통일 논의에서 독립된 통일 사상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sup>133)</sup> 물론 이는 앞서 언급한 ‘민에 의한 통일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문익환의 ‘한반도 변혁론’과 연결되는 것이며, 그 방식은 민주와 통일이 병행추진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방법론도 남북이 동의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도 문익환이 말하듯이, “통일된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한 최선의 제도와 정책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sup>134)</sup>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방안도 ‘민에 의한 통일 방식’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일찍이 문익환은 1988년 4월 16일 연세대에서 개최된 국민 대토론회에서 ‘민족 통일에 대한 구체적 제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민족부활의 방법론에 대해 ‘연방제 3단계 통일론’을 구상하고 발표한 것이다. 이 방법론은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해서 두 체제의 단점을 제거하고 두 체제의 장점을 조화시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예컨대, 그가 제시한 ‘연방제 3단계 통일론’이란 제1단계에서 국가 연합방식을 채택하고, 제2단계에서는 연방국가 방식을 실시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하자는 방식이었다.<sup>135)</sup> 이러한 일련의 구상이 방북의 성과 중에 하나인 ‘4·2’ 공동성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132) 이승환, “탈냉전의 선지자, 문익환 통일사상의 현재성,” 107.

133) 이남주, “문익환의 통일사상의 주요 쟁점과 현대적 의의,” 『신학사상』 181 (2018/여름), 82-83.

134) 문익환, 『전집』 3권, 17.

135) 김지형, 김민희 공저, 『통일은 뻗어』 (서울: 1994), 277.

이상을 종합해 보면, 문익환의 방북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문익환은 통일의 선취자다. 김일성과의 만남을 통해 남한의 정서를 전달하고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 개방정책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둘째, 실천적 통일운동가로서의 성과다. 그는 이론이나 상상에 머물지 않고 맨발로, 맨 가슴으로 북한의 지도자와 시민을 만났다. 뜨거운 가슴으로 만난 평양은 통일의 물꼬를 트는 역할과 그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 그의 그러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재야와 민중, 민족의 지도자로서 더욱 두드러졌다. 셋째, 기독교적 통일신학의 운동가라는 점이다. 그의 통일신학은 개혁과 개벽 그리고 성·속의 일치를 말하는 하나의 통일신학이다. 넷째, ‘민에 의한 통일’의 연대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그 성과는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 4.1.2. 방북 의미의 재조명

방북 직전 1988년 서울대 강연을 통해 문익환이 밝혔던 통일방안은 방북을 통해서도 제시한 바로서 지금도 재음미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른바 통일 과정의 3단계다. 첫 번째 과정은 군사와 외교를 남북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연방제, 둘째 과정은 군사 외교를 통합 운영하는 단계, 셋째 과정은 연방제 하의 남북 각 지방자치체를 도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이다.<sup>136)</sup> 이러한 3단계 통일 논의는 1987년에 김대중이 제시한 “공화국연방제”와 1단계 과정에서는 유사성을 가진다. 문익환이 제시한 1단계의 연방제는 국가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한 정부의 요구를 북측이 수용하는 것이다. 반면에 2단계의 군사외교까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은 북측의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문익환의 입장은 북한의 입장과 거리가 있다. 예컨대 어떤 조건의 연방제로 진입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설명이 없다. 북측에서는 남측에서 바로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당장 고려연방제를 실시하자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까다로운 상황과 전제조건들을 두고 문익환은 남북이 모두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북은 자유를 향해서, 남은 평등을 향해서 과감한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sup>137)</sup>는 것이다.

이러한 과감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 점이 남북문제 해결의

136) 문익환, 『전집』 3권, 235-237.

137) 문익환, 『전집』 3권, 238, 282-283.

실마리가 될 것이다. 남한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에 대한 통일정책이 달라진다. 일관성 있고 끈기 있는 우호 정책으로 상호공존의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4·2 공동선언’<sup>138)</sup> 가운데 제4항은 이를 잘 말해 준다.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 방도가 되며, 구체적인 실현은 점진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오늘날 논의되는 점진적 통일방안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진적 통일 방식은 남북이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화해 가는 것이다.

서중석은 문익환 방북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1989년 문익환의 방북과 2000년 6·15 정상 회담<sup>139)</sup>으로 열린 남과 북의 관계에 대하여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는 남북관계의 1단계 진입 성과를 말하고 있고, 제2단계의 발전으로 남과 북의 교류협력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기본 구조를 구축하는 성과를 언급했다.<sup>140)</sup> 이는 문익환이 주장하고 실천한 통일지향의 역사의식과 시민의식의 형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도 남북연합을 준비하는 합의문이 담겨 있다. 그중에는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들어있다. 물론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전략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합의들을 재음미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남북연합 단계의 진입은 물론, 남북통합의 단계를 끌어올리는 통일의 길에 한

138) 4·2 공동선언의 9개 조항을 간략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제1항, 7·4 남북 공동성명서에 기초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한다. 제2항, 두 개의 조선 정책을 반대하고 하나의 민족 그리고 통일된 나라를 지향한다. 제3항, 북·남 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고 이산가족 등의 교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4항, 공존의 원칙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 방식. 제5항, 틴스피릿 합동군사연습이 남북 평화와 통일에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제6항, 북의 교차승인 반대와 문익환의 점진적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양측의 긍정적 확인. 제7항, 남북 단결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돈, 힘, 지식을 제공하여 통일 위업을 달성한다. 제8항, 북측은 남측 전민련의 범 민족대회 소집을 지지하고, 문익환 목사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하는 남조선 청년 학생을 지지한다. 제9항, 이상의 8가지 합의 조항이 실현되기 위한 다각적 대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고 북남 당국과 제정당 단체에 건의 한다. 문익환, 『전집』 3권, 336-338..

139) 2000년 6월 13-15일 사이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 회담을 하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5가지 선언을 한다. 첫째,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 셋째, 2000, 8.15에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인도적 해결. 넷째, 경제협력과 민족경제 균형 발전을 위한 제반 협력교류의 활성화. 다섯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당국 사이의 대화 개최. 이상의 5가지를 협의 하였다.

140) 서중석, “통일지향 역사의식과 시민의식 형성의 중요성,” 『늦봄 방북 20년, 통일운동의 성찰과 전망』, 문익환 방북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09.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문익환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깨어 있는 ‘민이 주도하는 통일’<sup>141)</sup>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국민이 역사의 주체가 될 때, 통일이 온다’는 주장으로 문익환은 거듭거듭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정부 차원의 통일 논의는 남과 북이 다 같이 체제유지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중운동의 견지에서 보면 반통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운동의 주축이 된 국민이 역사의 주체가 될 때 통일이 온다는 인식은 뚜렷합니다.<sup>142)</sup>

그러나 이러한 ‘민에 의한 통일’의 주장도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의 ‘합법성’의 문제로 남북, 해외간의 교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문제는 현행법의 제한들이다. 결국은 민과 관이 상호 협력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민이 주도하되 관이 따라가는 방식의 길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이 남북 각 정부에 대해 갖는 태도의 중립성 문제도 있고, 북측의 ‘민’은 과연 ‘민’으로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그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의 소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민이 주도가 되어 비정치적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남북의 상호신뢰를 두터워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4.2. 방북 이후 통일운동의 전망

### 4.2.1. 민의 주도와 민-관 협력의 필요성

문익환의 방북 이후 통일운동의 성격은 정권이 변할 때마다 많이 달라졌지만, 냉전 시기의 통일운동과 탈냉전 시기의 운동 양상은 확연히 다른 것이다. 특히 탈냉전 시기의 통일운동은 ‘중립성의 원칙’과 ‘합법성의 원칙’이 강화되기 시작했다.<sup>143)</sup> 문익환은 지난 시기의 통일운동이 남한 정부만을 대상으로 투쟁한 것이었다면, 이

141) 문익환, 『전집』 3권, 132.

142) 문익환, 『전집』 3권, 252-253.

143) 이승환, “탈냉전의 선지자, 문익환 통일사상의 현재성,” 109.

제는 남북의 두 정부를 중재하면서 민이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다.<sup>144)</sup> 그러면서도 동시에 민의 한계를 알고 ‘민이 주도’하지만 ‘민-관’ 협력관계의 소중함도 지적했다. 이를테면, 종교단체나 시민운동 단체, 그리고 재야의 모든 통일운동 단체가 정부까지 하나의 운동으로 묶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 북, 해외동포가 중심이 된 범민련(1990년 베를린에서 결성)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민의 의지를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통일운동체의 결성을 제안했던 것이다. 이것은 북한과의 연대방식을 새롭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간 이어져 온 남북해외의 3자연합에서 벗어나 형식적인 연합체가 아닌, 실질적인 느슨한 연대체로서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당시 ‘북의 논리와 사상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전통적 통일 논의를 재고하는 방식이었다.<sup>145)</sup>

이러한 일련의 통일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하지만 문익환이 늘 주장해 왔던 바대로 ‘통일은 민이 주도해야 한다’는 방식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익환의 주장과 통일문제는 “궁극적으로 정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창구 단일화론’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익환의 ‘민 주도방식의 통일운동’은 정부와 대립해서 ‘모든 것을 민간에서 혼자 다 하겠다’는 식의 독자론이 아니고, 민간급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주도하면서 대화해 나아가면서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관(정부)에서 도와주는 ‘민·관 일체형’의 통일론이었다.<sup>146)</sup>

방북 이후 또 하나의 쟁점이 된 것은 통일 준비의 시급성이었다. 그동안에는 통일운동의 자유를 쟁취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통일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사실 통일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갑자기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을 민족 통합의 지속적 과정으로 보고 바로 그 과정에 돌입한 자세로 준비에 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통일 준비의 시급성을 느낀 문익환은 곧바로 ‘통일맞이 7천만 겨레운동’을 추진했지만 얼마 후 그는 사망하고 말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문익환이 남겼던 방북 성과와 ‘4·2 공동성명’에 담긴 정신을 충

144) 문익환, 『전집』 5권, 435-436.

145) 이승환, “탈냉전의 선지자, 문익환 통일사상의 현재성,” 111.

146) 김지형·김민희 공저, 『통일은 됐다』 (서울: 지성사, 1994), 265.

실히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 내용이 2000년 6·15 공동선언에도 담겨 있고,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도 그러한 정신은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통일로 가는 여정에 필요한 ‘공존’의 의식과 ‘점진적 추진’을 담지하여 민의 주도성을 살리되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광범위하게 통일 의지를 이끌어 내는 ‘실질적 연대’가 계속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는 한반도 대전환이라는 의식과 사회개혁이 필요하고, 남북관계의 점진적 통합을 위한 창조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민족자주나 교류협력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배출되어야 한다. 이념을 넘어선 문화 예술적 상상력이 크게 기여할 것이다. 문화예술의 영역에는 남북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이러한 내용은 이미 상호 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포함하여 농업이나 환경생태,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4.2.2. 민족 논리의 자주적 통일론: ‘어떤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

문익환은 1994년 죽음을 앞두고 김남식과의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통일시대를 열어 가는 9가지 이야기』를 책으로 남긴다. 그 내용의 마지막 9장에서 향후 ‘어떤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김남식은 질문을 통해, 한반도 통일문제는 국제문제이기 전에 민족 내부의 문제임을 전제하고 강대국 정치 논리에 따라가는 정치학자들의 의식을 경계한다. 김남식이 민족 논리로 통일문제를 바라보아야 하고 7천만 겨레가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일부 정치학자들의 편향된 의식을 지적하며, “만약 민족이 주체가 되어 민족 내부 문제로서 통일을 실현하지 못할 때에는 민족해방투쟁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문익환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단한 주장을 하셨네요.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해야지요. 왜 우리의 통일을 그 사람들(미국)이 해 줍니까? ... 어떤 통일이어야 할까?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주인 노릇하는 통일이어야 하지 않습니까?<sup>147)</sup>

147) 문익환, 김남식의 마지막 대화,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아홉 가지 이야기』 (서울: 통일



김남식은 계속 질문을 던진다.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하는가?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 필요하고 그 중에도 자주 원칙이 더욱 중요한데, 7천만 겨레가 대단결해야 하며 남북의 상호 다른 이념 체제를 존중하고 공존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질화가 심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익환은 “그거 1994년 1월호 ‘말’지에 리영희 교수가 잘 썼어요. 어느 쪽이 더 이질화됐는가? 북이 이질화됐는가? 남이 이질화됐는가? 정말 명쾌한 분석이었습니다.” 이질화의 문제는 남쪽이 극복해야 할 심각한 상태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문제는 북쪽이 70-80년대에 주장한 “고려연방제”가 90년대에 와서는 “느슨한 연방제”로 바뀌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 문익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외교와 군사를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연방제다.” 그런데 이것으로 언제 성사될지 모른다는 입장을 김일성 주석에게 밝히자, 방북 이후 1991년에 김일성 주석이 내놓은 신년사의 통일 방식이 ‘느슨한 연방제(Confederation)’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익환이 제의한 3단계 통일안의 제1단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문익환은 통일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낙관론자였던 것 같다. 그가 그런 꿈을 꾸는 것은 ‘민의 감정’을 중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남식과의 대담에서 그는 이렇게 길게 진술한다.

반만년을 한 민족으로 살아왔다는 민의 감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민족 감정이 결국 이념과 체제문제까지도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민족 감정으로 유엔에 한 나라로 가입하고 한 정부를 세우고 한 국회를 동수로 세워서 통일 작업을 시작한다면 미래는 창창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이 뿌리 깊은 민족 감정이 다른 두 이념과 체제마저도 싸안으면서 우리들의 이념과 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인 거죠.<sup>148)</sup>

두 체제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들을 살리는 대 종합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슬슬 시작해야겠다”는 것이 문익환의 각오요 다짐이었다. 민족 자주 원칙의 방식으로 통합을 이루되 그 변증법적 통합의 방식은 문익환이 틈틈이 이야기한, ‘평등과 자유의 변증법’이다. 이는 앞서서도 보았듯이, “남한은 평등을 향해서, 북은 자유를 향해서 궤도

맞이, 1995), 92-93.

148) 앞의 책, 98.

수정을 해야 만나는 통일”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모순을 극복하며 더 나은 사회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욱 절실한 것은 역시 자주적인 역량이다. 이것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 김남식의 표현대로, “남북 민족 성원이 자유로운 총선으로 채택하는 체제와 이념이 되며”, 문익환이 꿈꾸는 “도 단위의 지방자치 정부가 서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sup>149)</sup>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통일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이다. 민의 뜻을 받아서 남북 정부당국은 합의하고 제도화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고 하는 것이 문익환의 통일백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3. 민중 주체의 신학적 통일운동 전망

#### 4.3.1. 민중의 신학적 상상력과 통일운동의 만남

##### 4.3.1.1. 히브리 민중과 해방전통

문익환에게 있어서 민중이 주체가 되는 신학적 상상력은 그의 예언자 신학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히브리 민중사』를 통해 그의 예언자적 정의와 사회적 해방의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 히브리의 노예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는 전통의 역사 가운데는 정의의 야훼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이 문익환의 신학적 전거다.

히브리 민중들이 뼈가 부서지는 종살이를 털고 이집트를 탈출한 광야의 40년에 비하면, 1987년 6월 항쟁 당시의 분단 43년이라는 세월은 히브리 민중의 광야 생활에 비하면 그래도 견딜만한 것이었다고 한다. 히브리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몸부림은 이집트에서의 ‘탈출’과 ‘가나안의 정복’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된다. 히브리 민중들에게는 탈출이지만 야훼의 편에서는 ‘해방전쟁’이었다. 청동 무기로 무장한 히브리 민중이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지만 ‘다윗의 돌팔매’는 야훼의 승리를

---

149) 앞의 책, 100.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히브리 민중의 해방의 역사는 계속되었다.<sup>150)</sup> 다윗이 가져온 민중의 승리는 새나라의 기틀을 세운다. 문익환은 이 새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핵심 요소가 ‘십계명’이라고 한다. 이 ‘십계명’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시를 지어 노래한다.

피에 절은 땀내가 소리치면서  
뜨거운 파도가 모래를 날린다.  
성난 시내산  
헉헉 안으로만 숨을 몰아쉬다가 그만  
가슴이 터져 불을 쏜다.  
모래불 위에 떨어지는 불꽃  
불꽃처럼 튀구는 살점 살점  
모래알로 입술을 바수던 40년 불이 탄다  
채찍소리 불길을 끊으면서  
모세의 등허리에 열줄 핏자국이 패인다.<sup>151)</sup>

이 십계명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다. 바로 ‘모세의 등허리에 패인 열줄 핏자국’이다. 성난 시나이산이 산 가슴을 터지며 내 뿜는 불꽃이다. 오히려 그건 “불꽃처럼 튀구는 히브리(하비루) 노예들의 살점”들이다. 이렇게 문익환은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민중의 피와 찢어진 살점에 비유하면서 민중을 위한 헌시를 바친다. 이를 두고 그는 히브리 민중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면서 야훼 하느님이 모세를 통하여 세우려고 했던 새로운 공동체의 정신과 뼈대라고 말한다.

해방 후 우리의 헌정사는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민주적인 기틀로 손색이 없었으나,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의 헌법은 독재로 일관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존된 십계명 정신에 걸맞는 헌법적 기틀을 가지자는 것이 문익환의 민중의 신학적 상상력이다.

너희 하느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하느님이다.(출20:2)

---

150) 문익환, 『히브리 민중사』 (서울: 정한책방, 2018), 37-105.

151) 앞의 책, 109.

야훼 하느님과 모세와의 이 대면은 히브리 민중이 경험하는 해방의 출발이다. 문익환은 이 히브리 민중의 경험과 우리 민족의 경험에서 유사함을 찾는다.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우리 민족과 대비시키면서, 모세의 십계명 정신을 통해 노동자를 인식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권력자들과 압제하는 자들의 횡포에서 민중들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계명’이라는 것이다.<sup>152)</sup>

#### 4.3.1.2. 예언자적 상상력과 해방의 몸부림

또한 문익환은 이스라엘의 분단을 비극의 씨앗이라고 보고, “솔로몬이 뿌린 비극의 씨앗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뿌리를 내린 것, 이것이 분단의 비극이며 두 해방군이 서로를 찢어 죽이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된 것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분단을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대비하면서 그는 예언자적 전통에 서서 분단극복을 위한 신학적 예지와 통찰력으로 통일운동의 물꼬를 트는 일에 앞장 선 것이다.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의 예언자 가운데 ‘저항운동의 물줄기’를 트는 예언자로 엘리야를 든다. 성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한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왕상14:30)

전쟁이 그칠 날이 없던 상황에서 예언자 엘리야가 등장하던 시기도 전란이 일어나면서 북방 이스라엘은 세 왕이 비명에 죽어갔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비유되는 대목이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확고한 권력으로 세 왕이 세습을 이어가고 있었다. 평양의 정권이 세습되는 것과 유사하다. 예언자 엘리야는 당대의 악한 왕으로 불리는 아합에게 직언을 고한다.

나뭇의 피를 흘린 개들이 같은 자리에서 네 피도 핥으리라.

엘리야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들은 아합은 누구인가? 성서는 이렇게 말한다.

---

152) 앞의 책, 112-120.

아합처럼 아내의 농간에 빠져 목숨을 내던져 가며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왕상21:25).

이를 두고 문익환은 히브리 민중 농민해방군의 전통에서 터져 나온 예언 운동의 엄청난 물줄기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예언자 아모스는 약 이백년 후에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하리라”는 정의의 예언자로 시대를 바로잡고자 했다. 이러한 일련의 예언 운동은 “해방을 열망하는 억눌린 민중의 힘이 터져 나오는 데서 시작한다.”<sup>153)</sup>고 그는 말한다. 문익환은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를 일러, “재야의 목소리가 터진 것”으로 규정한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심판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  
그 쌓이고 쌓인 죄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벌하고야 말리라  
죄 없는 사람을 빗돈에 종으로 팔아넘기고  
미투리 한 켈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아넘긴 죄 때문이다.(암2:6).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 외에, ‘근본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하느님이 사랑하듯이’ 온몸으로 사랑을 토하는 예언자 호세아가 있는가 하면, ‘시온의 예언자’ 이사야, ‘농민 예언자’ 미가 등의 예언자 전통을 히브리 민중의 눈에서 읽어낸다. 특히 예언자 미가의 신랄한 비판적 목소리는 섬뜩하게 들려 온다. 당시 압제자들의 잔혹함에 대한 폭로다.

내 겨레에서 가축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것들아  
살을 뜯고 가축을 벗기고 뼈를 바수며  
고기를 저며 남비에다 끓이고  
살점을 가마솥에 삶아 먹는 것들아.(미3:2-3)

---

153) 앞의 책, 165.

이상과 같은 예언자들의 외침은 각각 다른 시대 속에 살면서 압제자들에 대한 저항과 민중의 해방을 고하는 하느님의 선포와 같은 것이었다. 이에 문익환은 그들 예언자의 정신을 한반도의 상황과 결부시켜, 민중해방 전통의 맥락에서 풀어낸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한국민중신학회’ 회장직을 역임했던 최형묵은 『히브리 민중사』의 복간을 맞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민중신학에서 성서해석과 관련한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안병무의 『갈릴래아의 예수』가 널리 알려져 있거니와, 사실은 갈릴래아의 예수를 탄생시킨 모태가 되는 히브리 민중사의 맥락을 선연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선구격으로 평가받는 것이 마땅하다.”<sup>154)</sup>는 것이다.

#### 4.3.1.3. 문익환의 민중신학과 통일운동의 랑데부

문익환에게서 한반도의 민중의 고난은 히브리 민중의 고난과 겹쳐진다. 그에게서 민중의 고난이 가중되는 것은 민족이 분단되면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심화되는 것이었다. 이는 히브리 민중이나 한반도의 민중이 다른 점이 없었다. 따라서 분단을 극복하는 민족통일은 문익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지상의 과업”<sup>155)</sup>이다. 민족통일은 또한 전근대적 감상일 수 없고, 역사적인 필연이다. 이것은 마치 『히브리 민중사』에서도 보았듯이 민중을 향한, 민중의, 민중을 위한 신학이기도 하다. 문익환의 민중신학이 통일운동과 연결되는 고리는 특히 그의 설교에서 분명해진다. 1972년 초동교회에서 설교한 제목인 ‘오늘을 사는 믿음’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남북분단의 쓰라림이요, 민족의 비원인 평화스런 남북통일이 아니겠습니까? 남북통일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 한국 교회는 3·1운동 때 시대적인 사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오늘 한국교회는 민족적인 과제를 안고 제대로 씨름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sup>156)</sup>

함석헌 또한 민족분단의 비극에 대해 민족문제를 신앙의 문제와 결부시킨다. 함

154) 앞의 책, 293-294.

155) 문익환, 『전집』 3권, 16.

156) 문익환, 『전집』 4권, 30.

석헌은 38선을 민족의 시험대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38선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시험하려고 낸 문제다. 아마 마지막 문제일지 모른다. 이번에 급제하면 사는 것이고 이번까지 낙제하면 영원히 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면서, “고난은 인생을 하나님께 이끈다. 인류는 고난을 통해서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았다.”<sup>157)</sup>고 말했다. 전철 또한 함석헌의 생명론을 연구하는 논문에서, “고난을 통하여 인간은 생명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난다.”고 하면서, “생명의 종교와 역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sup>158)</sup>고 역설한 함석헌의 주장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처럼 민족분단은 고난의 역사였고 이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것 또한 신앙의 문제다. 이에 대해 문익환은 그가 스스로 지상과제로 삼았던 민족통일 문제에 대해 한국 교회도 관심을 가질 것을 다음과 같이 뼈를 에는 듯한 반성을 촉구했다.

너희의 의(義)가 공산주의자들의 의만 못하면, 하늘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sup>159)</sup>

이렇게 그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남북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초동교회 헌신예배설교)고 했다. 문익환은 또 마태복음 25장 35-36절(…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의 구절을 통해 인권을 신성불가침으로 규정한다. 그러한 “인권의 근거는 하느님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sup>160)</sup>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도 하느님의 나라와 사회정의로 해석한다. 이때 문익환은 ‘하느님의 나라’를 ‘하느님의 통치 영역’으로서 “성속(聖俗)의 구별 없이 온 세계가 그대로 하느님의 통치 영역”으로 본다.<sup>161)</sup> 따라서 문익환은 출애굽 사건도 하느님의 통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며, 한반도의 통일 또한 하느님의 통치 영역과 관련이 있다. 이른바 ‘의로운 하느님’의 경험이 온 누리의 영역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같은 ‘성·속의 일치’ 관념은 문익환이 민중신학 입장에서 민족통일론으로 가는 가교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문익환이 말하는 ‘성·속 일치’의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성스러운 경험’에 입각한 구속사(救贖史)적 배경과 일반적인

157)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과주: 한길사, 2010), 426, 464.

158) 전철, “함석헌의 생명론 연구,” 『오늘의 생명신학』 2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5), 48.

159) 문익환, 『전집』 4권, 31.

160) 앞의 책, 45-46.

161) 앞의 책, 54.

세속사(世俗史)와의 구별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라는 하나의 영역 속으로 일치시켜 보는 관점을 말한다. 이를 두고 문익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 둘이 사팔뜨기가 아닌, 이 둘이 한 초점으로 들어오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속의 구별을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양분해서 생각하는 기독교의 이원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입니다<sup>162)</sup>

이러한 문익환의 성·속 일치 개념은 특별히 그가 방북했을 때의 일화 속에서 잘 나타난다. 평양 봉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에 문익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중은 민중의 부활이요,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라고 평소에 믿고 살았는데, 평양에 도착해 보니까 부활절을 만났다.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을 느낀다.”라고 했다. 이때 북측에서는 부활 신앙을 허무맹랑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문익환의 이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른바, “부활 신앙이 민중을 살리는 신앙, 민족을 살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북측에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활이라는 개념이 종교적 신앙에 속하는 일이지만, 민중을 살리고 허리 잘린 민족을 살려내는 부활 신앙으로 고백 된다는 것이 곧 ‘성·속의 일치’라는 문익환의 주장이다. 이러한 문익환의 성속 일치론에 부합하여 안병무 또한 성과 속의 이분법에 대한 해체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른바, 성속에 속이 있고, 속 가운데 성이 있다. 그에게는 성속일여(聖俗一如)다. 예수 따로 민중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씨올예수민중’만이 있다.<sup>163)</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에 안병무는 민중의 관점에서 문익환의 ‘성속일치’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

#### 4.3.2. 문익환 통일운동의 계승

1993년 문민정부 초대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을 역임한 한완상은 『한반도는 아프다』라는 책을 통해 그가 통일정책의 실무로서 “뼈저리게 경험한” 비극의 현실을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표현함으로써 한반도의 실상을 고백하고 있다. 그는 이 비

162) 문익환, 『전집』 11권, 374.

163) 김명수, 『씨알사상과 민중신학』 (과주: 한국학술정보, 2012), 123.



극적인 ‘적대적 공생 관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남북 간의 대결이 심화되는 것은 양 체제 안의 권력 주체가 극단주의적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 양측의 권력 주체는 안으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방 체제의 위협을 심각하게 각색하고 과장한다. 셋째, 양 체제의 강경하고 극단적인 권력은 체제 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그들의 권력 기반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한다.<sup>164)</sup>

이러한 남북한의 정치적 현실에서, 정부 주도의 통일운동은 번번이 고착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도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 조지아 대학 종신교수를 역임한 박한식은 『평화에 미치다』라는 책을 통해 그가 평생 추구해 왔던 남북한 평화통일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조선 모두 체제 경쟁과 안보 패러다임의 포로가 되어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통일은 커녕 대화와 교류도 단절된 분단체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sup>165)</sup> 분단 고착화로 인한 민족의 한은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로서 박한식은 개성이나 DMZ에 ‘통일평화대학’을 조성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왜, ‘통일평화대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이 무시무시하고 또 어려운 과제를 앞에 놓고 볼 때, 대학이라는 것을 피해서는 거기서 무슨 이론이나 설계도가 나올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중시하는 민족이고 또 교육 기관도 많이 있었고 하니까 교육에 역점을 두자 해서 대학을 하자 했습니다. ... 이질적인 체제가 조화롭게 서로 관용할 수 있으려면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평화만들기와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sup>166)</sup>

남북한 교류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의 통일관련 교육은 상호 교차적 교육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는 지적도 있다. 정창현은 통일을 위한 남북의 역사 인식에서 공통점을 찾으면서 차이를 좁히기 위해, 남쪽의 학생들이 북쪽의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

164) 한완상, 『한반도는 아프다』 (서울: 한울, 2013), 9-10.

165) 박한식, 『평화에 미치다』 (서울: 삼인, 2021), 9.

166) 박한식, 『박한식 사랑방 통일 이야기, 안보에서 평화로』 (서울: 열린서원, 2022), 179-182.

형직 사범대, 김책 공업대학 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은 오히려 가능하다고 제안한다.<sup>167)</sup> 이러한 방안도 민과 관이 협력하면 좋은 의외의 성과도 있을 수 있다.

한편 문학평론가로서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라는 책을 저술한 백낙청은 ‘촛불혁명과 개혁세상의 주인노릇을 위해’라는 제목의 서장에서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촛불대항쟁이 촛불혁명을 일으켰고 촛불정부를 탄생시켰는데, 그 희망이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sup>168)</sup> 다시 개혁이 아닌 ‘개혁’의 정신을 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촛불혁명의 위력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깊은 뿌리를 지녔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다.”<sup>169)</sup> 그리하여 그는 ‘시민참여형 통일운동과 한반도 평화’를 논하는 장에서 “시민 참여형 통일운동의 1단계 목표는 남북연합”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낮은 단계의 연합제’다. 이는 2007년 10·4 선언 이후 이미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도 얼마 못 가서 중단되고 역행의 길을 걸어서 남북 대결이 강화되었음을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백낙청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 “시민 참여 없는 통일운동이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1972년의 7·4 공동성명은 시민참여가 거의 제로 상태였는데, 얼마 후 집권자 마음대로 했다가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평화체제 건설의 필수 조건으로 시민참여형을 말하고 있고, 그 시민참여는 점진적, 단계적, 창의적 통일과정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sup>170)</sup> 백낙청의 이러한 시민참여형 통일운동 주장은 문익환의 ‘민 주도형 통일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

역사학자 강만길은 역사학은 성격상 어느 학문보다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모든 학문이 현실을 제대로 알고 그 현실을 한층 더 낫게 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 미래를 창조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어느 학문보다도 개혁성과 진보성이 강한 학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출간된 그의 저서 『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는 세계 유일의 분단민족으로 “왜 거듭 분단과 통일을 말해야 하는지”를 진보적 역사의 눈으로 통일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sup>171)</sup> 이처럼

167) 이재봉 외, 『통일대답』, (서울: 사람과 사회, 2020), 172.

168) 백낙청,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 (과주: 창비, 2021), 12-13.

169) 앞의 책, 19.

170) 앞의 책, 285-296.

171) 강만길, 『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 (과주: 창비, 2018), 15-33, 296-321.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의 숙제로 남아있다.

문익환 통일운동은 지금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 문익환 통일운동이 보여준 여러 가지 역사적 교훈도 있지만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 깨어 있는 ‘민중’들이 힘을 모아 연대하여, 문익환이 이루고자 했던 ‘민에 의한 통일’ 운동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자는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로, ‘민중(씨울) 연대’의 결성된 힘과 실천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 간의 대치적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민에 의한 통일운동’ 단체들과의 연대적인 활동을 통해 통일 의지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얻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최근에 강수택은 함석헌의 연대사상을 저술한 『씨울과 연대』라는 책에서 ‘씨울’의 실천적 연대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실천적 연대 사상은 북한의 씨울은 물론 세계적 연대를 포괄하는 씨울의 연대적 필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 첫째로 씨울은 권력, 부, 지식 등을 갖지 않은 자여서, 연대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서로 돕고 살아가는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다른 국가나 민족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현실적 상황이 씨울의 연대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2년 박정희가 영구집권을 획책하던 무렵 나라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지자 함석헌이 씨울을 향해 같이 살기 운동이라는 연대 운동을 일으킨 것도 한 예다. 정치적 압박의 사례뿐 아니라, 현재 세계가 처한 환경오염, 핵전쟁, 기후위기 등도 씨울의 연대를 요청하고 있다. 셋째, 씨울의 시급한 연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연대가 어렵다는 점이다.<sup>172)</sup> 이러한 현실에서 함석헌이 내세운 해결 방식은 지식인을 통해 씨울에게 조직과 분명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의 하나가 『씨울의 소리』 창간이었다. 이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정권의 언론탄압으로 1988년까지 중단되었지만 그 후 8년만인 1988년 12월 22일에 다시 복간된 이후 현재까지 발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씨울의 교육과 실천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박종화는 문익환의 통일운동과 관련한 큰 뜻을 계승하는 방편으로 국제 민간단체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테면 적십자 운동, 세계교회협의회(WCC) 등과 같은 기구를 통해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슈를 세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sup>173)</sup> 이는 없는 기구를 새롭게 만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기존에 있는 조

---

172) 강수택, 『씨울과 연대』 (서울: 새물결, 2019), 257-261.

직과 단체들을 적극 협력 수용하는 포괄적 통일운동 방식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단체가 정부주도의 단체도 많지만, ‘민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며 자발적으로 형성된 민간 통일 그룹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본 연구자가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는 (사)통일맞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국경선 평화학교’,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그리고 ‘평화통일 시민행동’ 등이다. 이러한 단체의 활동 외에 필자는 2019년 ‘4·27 DMZ 평화 손잡기 운동’에 참가하여 인간 띠 잇기를 통한 통일 염원의 대열에 함께 하기도 했다. 이는 동해에서 서해까지 500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손에 손잡고 연결하는 행사로서 한국민의 비폭력평화 운동과 민족통일의 희망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통일운동은 각성된 ‘민’의 활동으로 개인은 물론, 가족, 학교, 교회와 종교 단체, 시민단체 모두를 아우르는 행사로서 통일운동의 작은 불꽃이 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2022 DMZ 국제평화 대행진’이 8월 3일에서 13일까지 11일간 개최되었다. 본 연구자도 이 행사에 참가하여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가장 낮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비무장지대, 경의선 타고, 가보고 싶어, 백두산.”이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11일간 걸어서 행진을 계속했다. 이 행사를 이끈 총단장은 조현정 전 향린교회 목사였고, 기획단장은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였다. 이 평화 대행진의 의의는 38선으로 분할된 DMZ에서, 비무장지대로 되어 있지만 가장 무장이 되어 있는 모순된 공간으로 군사적 대결이 가장 첨예한 곳을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고 끝내는 통일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2018년 4월 27일에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지도 벌써 4년이 지나갔다. 냉전의 산물이 종식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오늘이 남북 정세는 오히려 더욱 긴장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행진을 시작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통일 행사와 관련된 본 연구자의 활동과 참여의식은 일찍이 유명 모·함석헌의 씨울생명평화사상을 실천하는 모임에 참가하면서 강화되었다. 특히 2018년부터 함석헌과 민주화 길을 동행했던 문익환, 장준하, 서남동, 안병무와 관련

---

173) 김거성, 박종화, 이해학, 홍근수, 앞의 글, 36.

된 학술회의 및 추모행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받은 영향력으로 ‘씨을순례길’을 기획하며 답사와 홍보를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 평화통일과 관련된 장소(강화 평화전망대, 강화 교동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임진각, 도라산 전망대, 철원 평화 전망대, 철원 노동당사, 고성 통일전망대, 금강산전망대, 화천 평화의 댐 등)를 선정하여 씨을들의 연대 모임인 ‘씨을순례길’을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을 소개하면서 생명, 평화, 통일 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문익환 통일운동과 그 뿌리는 기독교의 정신에 입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느님의 출애굽 해방 전통과 예언자들의 정의와 평화 사상에 따른 예언자적 전통이 문익환 통일신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그의 통일운동과 사상은 오늘의 한국교회에서도 그의 통일운동을 교육할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평등과 자유’의 변증법적 통일론과 하나님 나라의 ‘성·속일치’ 교육론은 히브리 전통과 분단 한반도의 통일론과 접목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문익환의 통일신학을 주기적으로 교회에서 교육하고, 통일 절기(4·2 공동선언,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등)에 따라 순례를 통한 통일 교회 교육도 하나의 중요한 교육의 방편이 될 것이다.

## 5. 결론

시인이자 목사로서 민족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민중과 함께 통일을 이루고자 온몸으로 불꽃 같은 생애를 살았던 문익환의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한국에서 민중신학이 태동한 1970년대는 군사독재 정권하의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던 상황이었다. 전태일과 그 이후 장준하의 죽음이 이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문익환은 이러한 민중에 대한 압살이 민족분단이라는 모순 속에서 더욱 치열해진다는 것을 알고 통일운동으로 발걸음을 전향하게 된다.

일찍이 북간도에서 항일투쟁의 선봉에 섰던 부친 문재린과 어머니의 민족의식으로 무장되었던 그는 친구 운동주의 죽음으로 더욱 민족의식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게 된다. 구약신학자로서 『히브리 민중사』를 썼던 그는 히브리 민중의 고난이 한국 민중의 고난과 다름이 없고, 분단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참상이 남북의 대립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아, 히브리 예언자들의 사상을 체현하는 자세로 한반도 통일 문제에 깊이 천착하게 된다. 민중신학의 서장을 연 서남동과 안병무가 ‘민중’을 중심으로 한 민중해방의 성서해석과 하느님 나라 운동이라는 선교의 실천에 관심을 깊이 가졌다면, 문익환은 ‘시적 상상력’으로 통일을 꿈꾸며 ‘예언자적 운동’으로 방북을 결행하여 ‘벽’을 허무는 ‘몸의 해방 신학자’였다. 그 결과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 생활을 거듭해야 했으나, 도리어 민중과 함께하는 감옥 생활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분신 항거로 정국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도 민중들을 껴안고 함께 울면서, 민족의 모순을 풀어나가고자 했던 ‘민중·민족’ 신학자이자 실천적 통일신학자였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통일신학을 전개한 박순경, 노정선, 손규태 등의 일련의 평화-통일신학자들이 있지만, 문익환의 통일신학은 “걸어서라도 갈테야”라는 그의 시에서도 잘 보여주듯이 그는 몸으로 통일을 열어가는 개척적인 신학이자 민족적인 목회자였다. 이처럼 그의 ‘통일신학’은 이제 ‘통일사상’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다. 그것은 문익환이 “나에겐 신앙과 운동이 곧 하나”<sup>174)</sup>라고 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새 세대의 민중신학을 이끌어 갔던 후세대 민중신학자 최형묵도 문익환에게서 “목회자이자 신학자로서의 삶과 재야운동가로서의 삶 사이의 단절성보다는 연속성”을 주목했던 이유다.<sup>175)</sup>

174) 문익환, 『전집』 5권, 450.

175) 최형묵, 「신학사상」 181 (2018/여름), 76.

문익환 통일운동의 다양한 형태가 민족해방을 위한 통일사상, 민중해방을 위한 ‘민의 통일’ 사상, ‘평화·통일운동’ 사상, ‘역사의 통일’ 사상과 다원화된 시대의 통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운동과 사상은 문익환이 지닌 카리스마적 리더십과도 결부된다.

문익환이 꿈꾼 통일의 미래상은 남북한의 주장과 강조점이 조금 다른 사회주의 노선에서의 평등사상과 민주-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자유 정신을 상호 변증법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통일을 위한 국제 조직의 연대와 민족목회로서의 통일운동을 생을 마감하기까지 지칠 줄 모르게 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방북의 성과와 결부되어 ‘4·2 공동성명’으로 나타났고, 오늘도 그의 방북의 의미는 재조명되고 있다. 민의 통일 주도는 물론, 민-관 연합의 통일운동도 추진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문익환의 통일신학이 남긴 의미 중에 하나는 향후 민중이 주체가 된 신학적 통일운동에 대한 전망에서 분명해질 수 있다. 예컨대, 민중의 신학적 상상력이 통일운동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며, 이 점이 문익환 통일운동의 결정적 기여와 영향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통일을 위해 멀고도 험난한 생을 살았던 문익환, 그의 고뇌와 생명력은 다음과 같은 그의 시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통일을 너무 쉽게 말하는가?  
나는 하느님을 너무 쉽게 믿는가?  
나는 역사를 너무 쉽게 사는가?  
나는 시를 너무 쉽게 쓰는가?  
나는 원수를 너무 쉽게 사랑하는가?

아침이고 저녁이고 숨이야 쉬듯이  
밤만 되면 깊은 잠에 떨어져 코라도 골 듯이<sup>176)</sup>

이 시가 나온 시점은 1989년 12월 4일 자료, 방북 이후에 감옥에서 쓴 시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회한이 담긴 듯한 시 속에서도 그의 통일 의지와 ‘인간적-신앙인’의 삶의 고뇌가 그대로 묻어 있다. 문익환의 생애와 사상을 요약한다 해도 ‘통일’, ‘하느님’, ‘역사’, ‘시’, ‘원수-사랑’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모든 개념이 하나 같이 실행

176) 문익환, 『옥중일기』 (서울: 삼민사, 1991), 166.

에 옮길 수 있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어찌면 신(神) 혹은 신적 인간만이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늘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고 민중 지향적인 삶과 통일운동에 온몸을 던졌으며, 시적 상상력과 예언자적 상상력을 몸소 실천하며 역사를 이루어 갔다. 이른바 김기석의 표현대로 그는 맑은 시심과 천진한 서정성으로 “생명의 바다에 통일 배”를 띄운 것이다.<sup>177)</sup>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이다.

---

177) 김기석, “생명의 바다에 통일배 띄우고,” 「신학사상」 85집 (1994/여름), 62-79.



# 참고문헌

## 1. 문익환 주요 저작

- 문익환. 『가슴으로 만난 평양』. 서울: 삼민사, 1990.
- \_\_\_\_\_. 『걸어서라도 갈테야』. 서울: 실천문화사, 1990.
- \_\_\_\_\_. 『꿈을 비는 마음』. 서울: 백범사상연구소, 1980.
- \_\_\_\_\_. 『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서울: 실천문화사, 1984.
- \_\_\_\_\_.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 서울: 사계절, 2018.
- \_\_\_\_\_. 『두 하늘 한 하늘』.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9.
- \_\_\_\_\_. 『목메는 강산 가슴에 곱게 수놓으며』. 서울: 사계절, 1994.
- \_\_\_\_\_. 『새삼스런 하루』. 서울: 월간문학사, 1973.
- \_\_\_\_\_.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아홉 가지 이야기』. 서울: 통일맞이, 1995.
- \_\_\_\_\_. 『통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서울: 학민사, 1984.
- \_\_\_\_\_. 『통일을 비는 마음』. 서울: 세계, 1989.
- \_\_\_\_\_. 『하나가 되는 일은 커지는 일입니다』. 서울: 삼민사, 1991.
- \_\_\_\_\_. 『히브리 민중사』. 서울: 정한책방, 2018.
- 문익환 전집 출간위원회 기획. 『문익환 전집』 1권 ‘시집 1’. 서울: 사계절, 1999.
- \_\_\_\_\_. 『문익환 전집』 2권 ‘시집 2’. 서울: 사계절, 1999.
- \_\_\_\_\_. 『문익환 전집』 3권 ‘통일 1’. 서울: 사계절, 1999.
- \_\_\_\_\_. 『문익환 전집』 4권 ‘통일 2’. 서울: 사계절, 1999.
- \_\_\_\_\_. 『문익환 전집』 5권 ‘통일 3’. 서울: 사계절, 1999.
- \_\_\_\_\_. 『문익환 전집』 7권 ‘옥중서신 1’. 서울: 사계절, 1999.
- \_\_\_\_\_. 『문익환 전집』 8권 ‘옥중서신 2’. 서울: 사계절, 1999.
- \_\_\_\_\_. 『문익환 전집』 9권 ‘옥중서신 3’. 서울: 사계절, 1999.
- \_\_\_\_\_. 『문익환 전집』 10권 ‘신학 1’. 서울: 사계절, 1999.
- \_\_\_\_\_. 『문익환 전집』 11권 ‘신학 2’. 서울: 사계절, 1999.

## 2. 단행본

- 강만길. 『강만길 저작집』 16권 ‘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 파주: 창비, 2018.
- 강수택. 『씨울과 연대』. 서울: 새물결, 2019.
- 권진관. 『예수, 민중의 상징; 민중, 예수의 상징』. 서울: 동연, 2009.

- 김명수. 『안병무의 신학사상』. 파주: 한울, 2011.
- \_\_\_\_\_. 『씨알사상과 민중신학』.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2.
- 김영태. 『함석헌의 사상과 삶에 대한 종교철학적 탐구』. 광주: 전남대출판문화원, 2018.
- 김지형·김민희. 『통일은 됐어』. 서울: 지성사, 1994.
- 김형수. 『문익환 평전』. 파주: 다산북스, 2018.
- 노정선.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전략』. 파주: 한울, 2016.
- 리영희. 『전환시대의 논리』. 파주: 창비, 2020.
- 박순경. 『통일신학의 고통과 승리』. 서울: 한울, 1992.
- \_\_\_\_\_. 『통일신학의 미래』. 서울: 사계절, 1994.
- \_\_\_\_\_. 『통일신학의 여정』. 서울: 한울, 1992.
- 박용길 엮음. 『꿈이 오는 새벽녘』. 서울: 춘추사, 1983.
- 박한식. 『평화에 미치다』. 서울: 삼인, 2021.
- \_\_\_\_\_. 『박한식 사랑방 통일 이야기, 안보에서 평화로』. 서울: 열린서원, 2022.
- 백기완, 『백기완의 통일 이야기』. 파주: 청년사, 2005.
- 백낙청.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 파주: 창비, 2021.
- 생명신학협의회 생명신학연구소 엮음. 『오늘의 생명신학』.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5.
-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서울: 동연, 2018.
- 손규태. 『한반도의 그리스도교 평화윤리』. 서울: 동연, 2019.
- 안병무. 『갈릴래아의 예수』.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19.
- \_\_\_\_\_. 『민중과 성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 \_\_\_\_\_. 『민중과 한국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 \_\_\_\_\_. 『민중신학이야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 이유나. 『문익환의 삶과 분단극복론』. 서울: 선인, 2014.
- 이찬수 외. 『평화의 신학』. 서울: 동연, 2019.
- 조헌정. 『갈라진 땅에 선 예수』. 서울: 동연, 2021.
- 한완상. 『한반도는 아프다』. 파주: 한울, 2013.
-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파주: 한길사, 2010.
- 함석헌. 『함석헌 저작집』 17권 ‘성서적 입장에서 본 세계역사’. 파주: 한길사, 2009.
- NCC 신학연구위원회편, 『민중과 한국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 3. 논문

- 강원돈. “정의로운 평화와 ‘민에 의한 통일’- 심원 안병무 선생의 통일이론.” 「신학사상」 155 (2011), 141-171.
- 고지수. “1970년대 갈릴리교회 지식인들의 민중·민주이해와 분단체제: 문익환·안병무·서남동을 중심으로.” 「사림」 72 (2020), 317-346.
- 공헌배. “문익환 목사와 통일운동: ‘1989년 평양방문’을 중심으로.”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김거성·박종화·이해학·홍근수(정리: 최형목). “통일운동의 현단계와 문익환 목사의 통일이론.” 「신학사상」 85 (1994/여름), 7-42
- 김기석. “생명의 바다에 통일배 띄우고 - 문익환의 시세계.” 「신학사상」 85 (1994/여름), 61-79.
- 김은용.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문익환 목사의 시문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12 (1995), 110-136.
- 김진호. “민중신학이란 무엇인가: 전개와 평가 및 전망.” 「시대와 민중신학」 1 (1994), 24-32.
- 문익환. “꿈을 비는 마음.” 「씨올의 소리」 68 (서울: 씨올의소리사, 1977/10), 8-10.
- 박종경. “민중 중심의 기독교 통일운동가, 늦봄 문익환 목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 서중석. “통일지향 역사의식과 시민의식 형성의 중요성.” 『늦봄 방북 20년, 통일운동의 성찰과 전망』. 문익환 방북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09.
- 서진한. “민중신학의 태동과 전개.” 『민중신학입문』 서울: 한울, 1995.
- 안수강. “안병무의 민중론에 기초한 통일이론 분석.” 「기독교사회윤리」 40 (2018), 79-119.
- 이남주. “문익환의 통일 사상의 주요 쟁점과 현재적 의의.” 「신학사상」 181 (2018/여름), 81-107.
- 이승환. “탈냉전의 선지자, 문익환 통일사상의 현재성.” 「진보평론」 64 (2015), 89-113.
- 이유나. “문익환의 통일이론과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 \_\_\_\_\_. “문익환의 통일론의 형성과 성격.” 「한국기독교의 역사」 27 (2007), 173-198.
- \_\_\_\_\_. “문익환의 평화·통일 사상 담론과 성찰.” 「신학사상」 188 (2018/봄), 191-225.
- 임태환.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 개신교 운동에 대한 민중신학적 해석.” 성공회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 정지석. “함석헌의 민중 사상과 민중 신학.” 「신학사상」 134 (2006/가을), 101-133.
- 채희동. “늦봄 문익환의 삶과 사상-님은 겨레의 예언자요 통일의 사도이시라-.” 「민중과 신학」 3 (2000), 82-103.
- 최형묵. “꿈을 현실로 산 신앙의 선구 문익환 목사: 목회자이자 신학자로서 그의 내면 세계와 실천적 삶.” 「신학사상」 181 (2018/여름), 51-79.
- 홍근수. “40년 제자의 회상기: 통일의 예언자 문익환 목사.” 「월간 사회평론의 길」 94 (1994), 158-164.

# Abstract

## A Study on Ik-Hwan Moon's Unification M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Minjung Theology

Kim, Yeong Deok

Department of Systematic Theology

Hanshin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how the life as a theologian related to the unification movement of Rev. Moon Ik-hwan, who played a pioneering role in the unification movement, which worked from the viewpoint of the people and the nation to overcome the division of the national problem for the unification movement. The period when he was working as a theologian after studying abroad was in the 1970s, when Minjung theology was born in Korea, under the military dictatorship, the oppression of workers and the people was severe. The death of Jeon Tae-il further inflamed the public and national consciousness in him, and after that, the death of Jang Jun-ha made him have a greater desire for democratization and unification. Knowing that this series of suppression of the people becomes more intense in the contradiction of national division, he turns to the unification movement.

He, who wrote 『The History of the Hebrew People』, saw that the suffering of the Hebrew people was no different from that of the Korean people, and that the horrors of the divided Israel were in the same context as the situation of confront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herefore, he deeply adheres to the issue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attitude of deeply embodying the ideas of the Hebrew prophets. Seo Nam-dong and Ahn Byeong-mu were interested in the practice of missionary work, the liberation of

the people and the movement for the kingdom of God, centered on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Moon Ik-hwan was a 'theologian of liberation of the body' who made a visit to North Korea with a 'prophetic movement', dreaming of unification with 'poetic imagination' and breaking down the 'wall'. He was a practical unification theologian.

There are some peace-unification theology in the situation of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Moon Ik-hwan's unification theology was a pioneering theologian and a national pastor who dismantled the division with his body, as well shown in his poem "I will go even on foot". As such, his 'unification theology' was just another name for 'unification thought'. It is in line with what Ik-hwan Moon said, "For me, faith and movement are one."

The result of his visit to North Korea, the "4·2 Joint Statement," is being re-examined even today. It can be made clear in the prospect of the theological unification movement of the people's main agent in the future. It is predicted that the theological imagination of the people can be a driving force that can further accelerate the unification movement, and this will be the decisive contribution and influence of the Moon Ik-hwan unification movement.

Key words: Moon Ik-hwan, Unification Movement, Unification Theology, Minjung Theology, Hebrew people history